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11 1982년 8월 26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August 26,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5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SEP 1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김명규
편 집 인：이석현
인 쇄 인：박정서
광 고 국 장：송광호

문교성서 일부 신학교에 제동

목회지망자에 경종

한국학생 많은 CCC등 학점 인정 안돼

많은 토론토의 한국인 기독교인들을 교육시키고 학위를 수여하는 신학교들의 질적수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온타리오주정부는 캐나다·크리스천·칼리지(CCC)등 4개의 신학교 의 학위수여 자격박탈을 골자로 한 법안(Bill)을 금년가을 통과시킬 예정으로 알려졌다.

학위수여 자격박탈의 위험을 안고 있는 학교는 캐나다·크리스천·칼리지(CCC)와 The Institute of Christian Studies, The Canadian School of Management(Northland Open University)및 Coronation College(전 Richard College)이다.

이들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는 토론토대학등 각 유니버시티가 이들 학교의 학점을 전혀 인정치 않으며, 따라서 졸업후 다른 대학의 교수직을 얻으려할 때 인정을 못 받는다는 점이다.

교포 L씨의 경우 CCC에서 박사과정중 토론토대학 학부과정에 편입이 거부됐다. 말하자면 CCC의 석사, 박사학위까지의 전 학점을 1점도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 온타리오주 정부의 지적을 받은 학교외에 한국인 기독교 목회자나 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는 Ontario Bible College, Central Baptist Seminary, Ontario Theological Seminaries등으로 이들 학교는 종합대학(University)과 관련된 신학교들보다 입학규정이 덜 까다롭고 학점따기가 용이한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토론토대학 낙스신학교와 해밀턴 맥마스터대학 신학부, 워털루대학 루테란·세미나리는 반드시 학사학위(B.A.) 소지자여야 하는데 비해 이밖의 신학교는 고등학교 졸업자격만으로 입학이 가능하다.

맥마스터대학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79년 CCC 박사과정에 입학, 올봄에 신학박사를 받은 H목사는 CCC의 학점이나 학위로 학문적 경력을 인정받지 못함을 알면서도 CCC에서 공부한 이유는 첫째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받았고, 둘째 이 학교의 신학적 태도가 성경을 그대로 믿는 한국의 보수적 신학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수의 신학대학들이 자유신학으로 기울어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과학적 증명이 가능한 이적만을 믿는데 반발을 느낀다고 말한 그는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CCC에 입학원서를 내게 됐다.

지난 8월12일 〈토론토·스타〉지의 보도에 따르면 CCC의 학교안내광고문이 마치 이 학교가 신학이외에 일반 학사(BA)나 석사(MA) 학위를 수여하는 것처럼 들리도록 『오도』했고, 이 학교에서 주는 모든 BA, MA, 심지어 신학박사 학위조차도 학계, 종교계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수진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사는 동학교 책임자 엘머·맥비티씨와 수차례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24일 맥비티씨의 부인이라는 여성으로부터 동학교는 온타리오주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법적조처를 취하고 있으며, 엉터리 기사를 보도한 〈토론토·스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본지가 이에 관한 기사를 일절 쓰지 말도록 경고.

새학기 학생을 계속 모집하고 있는 CCC는 작년에 약 3백명의 학생이 등록했고, 학사, 석사, 박사를 막론, 학위 하나에 드는 학비는 $2,700~$3,500 이다.

지난 6년간 해마다 CNE의 부스를 얻어 학교를 선전해온 CCC는 작년도에 CNE에서 20~25명의 새학생을 끌었었다.

CCC에서 학위를 받은 한국인 목회자는 명예박사를 딴 K목사, BA, MA를 거쳐 목회학박사를 딴 L목사, 목회학박사를 딴 K목사등 다수이며, 목회자를 지망하는 본국의 기독교인들이 해외유학 케이스로 수학중인 사람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의 신학교는 북미신학교협회(North American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 of Canada & United States)에 가입된 신학교와 가입 안된 신학교로 나뉘는데 B.A 없이 입학가능한 학교는 대개 이 협회에 가입 안한 학교들이며, 기독교파중 연합교파와 장로교파는 협회가입 신학대 졸업자에 한해 목회자격을 주는 반면 침례교등은 이런 제한이 없다.

자수자 사형형법위배

"김현장·문부식등 재판절차는 부당 교회는 죽음 안내한 셈", 정의구현사제단

(서울)한국천주교 정의·평화구현사제단은 23일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김현장(32)과 문부식(23) 2명에 대한 재판절차는 부당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사제단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 이들이 자수했는데도 사형을 선고한 것은 대한민국의 형법을 위배한 처사라면서 천주교는 김등 3명의 주혐의자들에게 자수하면 적절한 의법조처를 받을 것이라고 충고, 이들을 자수시켰었다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형법에 의하면 자수한 사람에 대해선 형이 면제되거나 감형조처를 받게 돼있는데도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고 말하고, 『교회 안에서 피난처를 찾아온 이들에게 자수를 권유함으로서 교회는 이들을 죽음의 길로 안내한 셈이 되었다』고 항의했다.

성명서는 이어 자수를 권유한 자나 자수한 자에게 법적 혜택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누가 자수를 권유하고, 또 자수하겠는가고 반박하고 『우리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당국이 이에 대해 답해주길 요구하며, 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모든 고통을 감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대통령 환영리셉션 28일 5시 대사관저

오는 28일 오타와에 도착하는 전두환 대통령 환영 준비가 갖춰졌다.

토론토 교포 약 7백명을 비롯, 캐나다 전국에서 천여명이 초청된 전대통령 초청리셉션은 28일 하오5시 오타와의 이규현 대사관저에서 가든파티 형식으로 벌어진다.

토론토 교민들을 위한 차편은 욕데일쇼핑센터(401×더프린)에서 아침 7시와 10시 두편으로 나누어 떠난다.

점심식사는 도시락으로 제공되며, 7시에 떠나는 교민들은 오타와공항에서 전대통령의 숙소인 총독관저까지의 연도환영에 참석한다.

참석하는 인사들은 리셉션 장소인 대사관저로 가기전 총독관저 부근인 록클리프·파 근처에서 초청장과 명찰을 교환한다.

리셉션 시간은 하오5시~8시이다.

언론인에 한·카관계 설명

(오타와=이태은발)이규현대사는 24일 하오 4시부터 약1시간 동안 오타와 시내 프레스클럽에 캐네디언 언론인들 20여명을 초청, 전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앞두고 한국과 캐나다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을 갖고 한국을 소개했다.

이현홍공사, 이재판 공보관을 배석한 이대사는 이날 CTV, 글로브·앤드·메일, CP통신, CBC 라디오등 각 언론에 직접 영어로 외교, 캔두판매및 실적, 한국의 스포츠와 교육, 통일문제등에 관해 언급했다.

Merrill Lynch Royal Se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김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회관모금 5만달러 돌파

전경환씨도 $500 희사

한인회관모금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금준비위원회는 지난 8월10일~24일까지 8,750달러를 추가 모금, 총계 5만달러를 돌파했다.

토론토 여행차 들른 전대통령 친제 전경환(새마을 본부사무총장)도 24일 미화 $500를 내놓았다.

8월10일~24일까지 모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1,000－구연원
$500(미화)－전경환
$500－이상남, 이봉수, 홍대헌, 이형인, 강춘남,
$300－김용규, 박주삼, 허규갑, 허규삼, 호민식, 이한구
$200－장한영, 라빈곤, 전정구, 김경룡, 김성기, 강신복, 표용전
$150－윤길웅
$100－라영삼, 김주학, 구철회, 엄주면, 정인기, 김홍랑, 천중환, 김재용, 정해문, 이광환, 김철곤, 홍남성
$50－박명, 이선조, 박진봉 김동춘 ⊙소계: $8,750
⊙누계: 총인원 130명, 총액 $50,620

본사동정

편집부 유승민 부장이 결혼으로 9월7일~20일까지 2주간 휴가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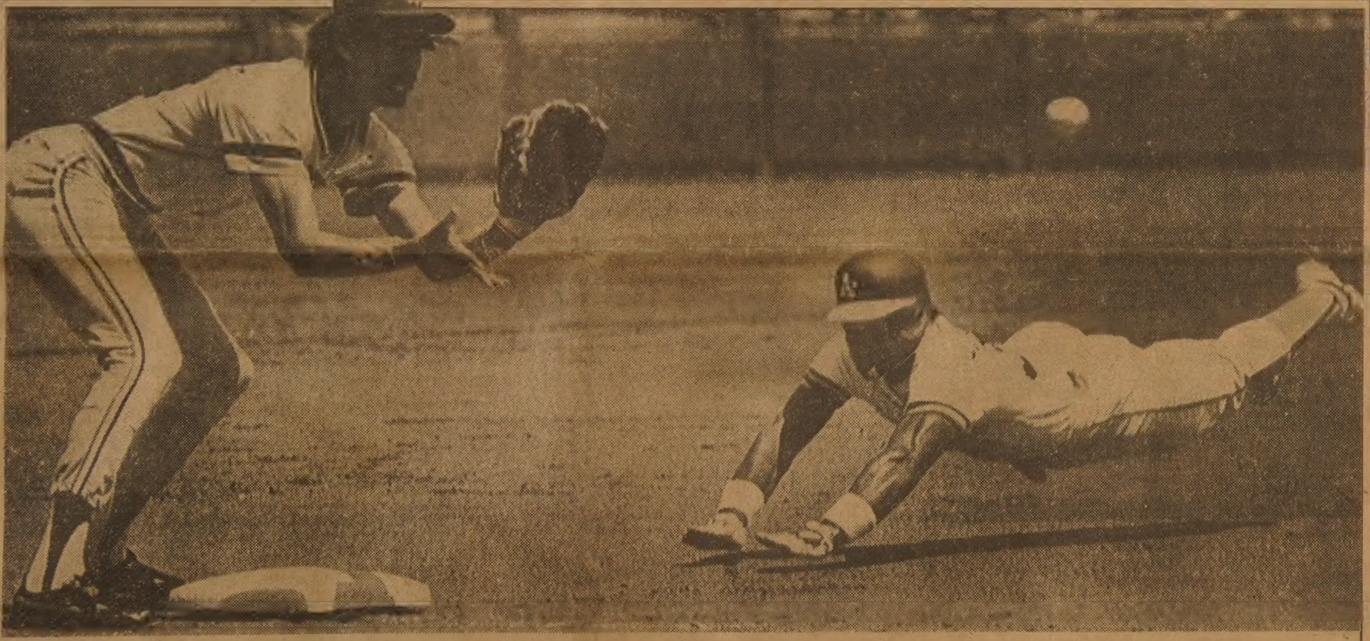
오는 4일 12시 한인장로교회에서 본사논설위원인 박희민 목사 주례하에 결혼식을 올릴 유기자는 결혼 직후 미국과 한국등으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신부는 본사 사진인쇄담당 김명희양.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7791 620A Bloor St. W.

도루왕 핸더슨 117개 기록 루·브록의 118개에 도전



◆훔치는데 명수 오클랜드 A's의 릭·핸더슨이 메이저리그 신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24일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또 3루를 훔치어 117개나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신기록은 루·브룩의 118개이다. 핸더슨은 8회에 세컨드를 노리다가 아웃당해 이날 기록 돌파에서 실패했다.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김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환 영

전두환대통령 각하 내외분의 캐나다
공식순방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의 통상및 경제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것으로 기원드립니다. 1982년 8월

대한무역진흥공사

토론토무역관 (416)977－8784
몬트리얼무역관 (514)878－3425
뱅쿠버무역관 (604)683－1820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e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에드몬톤서 승리한 토론토 한인청소년배구팀. 앞줄 왼쪽에 임승철 사무장, 뒤는 이경애 코치, 오른쪽에 정세용 배구심판, 뒤에는 문영환 배구협회장. 활약이 컸던 석남일·정기섭군은 앞줄 왼쪽부터 3, 4번째.

토론토 한인배구 에드먼턴 석권

온타리오 리그서도 결승 진출

(에드먼톤)토론토 한인 청소년배구팀이 에드먼톤과의 친선경기에서 2시간의 열전끝에 셋스코아 3:2로 승리했다.

지난 21일 에드먼톤에서 거행된 제4회 캐나다한인 친선배구대회에는 토론토팀외 에드먼톤지역 3개팀이 출전했다. 정기섭, 석남일군이 주축이 된 토론토팀은 에드먼톤 대표팀과의 결승에서 1·3세트를 따내고 2·4세트를 내준 뒤 마지막 5세트 결승에 들어갔다. 5세트에서 양팀은 듀스까지 이루는 열전을 벌였으나 에드먼톤의 공격미스로 17:15, 승리는 토론토로 돌아갔다.

토론토팀은 배구협회 문영환 회장과 최찬배 주무의 인솔아래 정기섭, 석남일, 심기호, 조성섭, 최진영, 엄주수, 임문규(주장)의 7명이 출전했다.

한편 토론토대표팀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온타리오 써머리그에서 A조예선 우승으로 결승토너멘트에 진출했다.

26일밤 7시부터 시내 하버드고등학교(286 Harbord) 체육관에서 거행될 결승토너멘트에는 교포팀과 함께 A조 2~4위와 B조 1~4위팀이 출전, 총 8개팀이 열전을 벌인다.

배구협회는 이 결승이 끝난 후 한국관에서 청소년팀을 지도한 이경애 코취의 송별연을 갖는다.

이 코취는 전 한국대표선수로 캐나다에 배구코취로 초빙됐다가 이번에 미국으로 유학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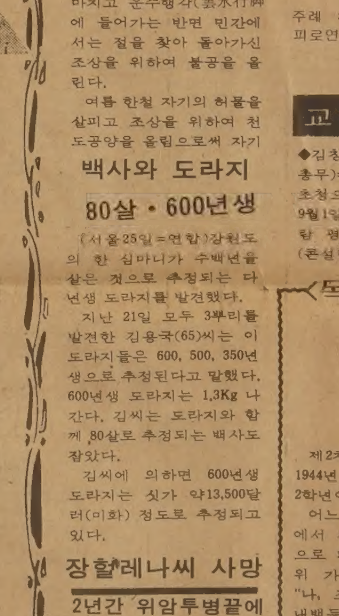
배구협회 문영환 회장은 협회인원·이사들의 많은 참석을 원한다고 전했다.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萬5의 사나이 <56>

어떤 殺人 ③

金聖鍾 작



朴男 그림

"入金시간 어기면 그놈은 당장 아빠에…"

두봉은 여동생이 누워있는 회복실로 돌아갔다.

그녀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눈을 감은채 누워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그는 가슴이 미어지는것 같았다. 비로소 누이가 모세라는 사나이로부터 얼마나 시달림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누이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다.

『괜찮으냐?』

문자는 힘없이 눈을 뜨고 그를 올려다 보았다.

『죄송해요.』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베갯잇을 적시고 있었다.

『기운을 내.』

『지금 몇시예요?』

『세시다.』

『어떡하죠? 한시간 밖에 안남았는데…』

그녀는 상체를 일으켜 앉았다.

두봉은 우울한 빛으로 누이를 바라보았다.

『생각해봤는데…2천만원을 입금시키지 말자.』

『그럼 어떡 하자는 거예요? 그가 가만 있지 않을텐데요.』

『2천만원 입금시킨다고해서 그것으로 끝난다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놈은 계속 돈을 요구할거란 말이야. 요구액은 갈수록 늘어날거고. 안 그래?』

『그건 그래요.』

『그렇다고 그놈의 요구를 한없이 들어줄만큼 너한테 경제력이 있는것도 아니잖아. 다음에는 4천만원쯤 요구할텐데 그만한 돈이 있니?』

『없어요.』

그녀는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다음에는 빚을 낼수밖에 없어요.』

『그렇테지. 빚도 한정이 있지. 결국 네가 그놈한테 돈을 주고 있는건 남편한테 알려지는 것을 잠시 지연시키고 있다는것 밖에 되지않아. 언젠가는 알려지고 말 것을 거액의 돈으로 잠시 지연시키고 있는것 밖에 되지않아. 안 그래?』

『그건 그래요. 그렇지만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계속 당하기만 할것이 아니라 이번에 한번 부딪쳐보자는 거야. 돈이 바닥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 알거지가 되기전에 손을 쓴는게 낫지 않겠어? 남편에게 쫓겨난데다 알거지까지 돼봐. 넌 그야말로 올데 갈데 없는 거지가 되고 말거다. 네가 죽든도 마찬가지겠지. 그놈은 말라죽을 때까지 피를 빨아먹을 놈이니까 이제 더이상 용하지 말고 한번 부딪쳐보는 거야.』

『오빠말씀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오늘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당장 철민이 아빠한테 이야기 할텐데요.』

『말이 그렇지 당장 이야기하지는 못할거다. 일단 너한테 연락해보고나서 손을 써도 쓸거다.』

『아니예요. 그놈은 철두철미한놈이에요. 오늘만 지나가면 내일 당장 철민이 아빠한테 이야기할거예요.』

『놈이 노리는게 바로 그거야. 놈은 너한테 잔혹하고 철두철미하다는 인상을 심어놓은 다음 너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는게 틀림없어. 오늘 돈을 입금시키지 않는다고해서 당장 남편한테 이야기하지는 않을거다. 이야기하게 되면 2천만원은 못받게 될테니까 말이야. 그런 거액을 그놈이 쉽게 포기할리 있겠어. 일단 너한테 연락을 취해보고나서 행동으로 들어가겠지.』

"자신을 새롭게"

선련사, 29일 백중법요식

한국불교회 선련사는 한국불교의 4대 명일인 우란분절 곧 백중을 맞이하여 그 법요식을 오는 29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아래와 같이 봉행한다.

오전 11시 천도불공

정오 12시 법문(삼우스님)

제목: 조상과 자손의 역학관계—동양인의 시간관—.

오후 1시 점심공양

백중(음력 7월 보름)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고래의 민간 명절로서 이날 절에서는 스님들이 여름 안거(참선공부)를 마치고 운수행각(雲水行脚)에 들어가는 반면 민간에서는 절을 찾아 돌아가신 조상을 위하여 불공을 올린다.

여름 한철 자기의 허물을 살피고 조상을 위하여 천도공양을 올림으로써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백중의 뜻이다.

김삼우 스님은 24일 바쁜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많은 교민이 백중불공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련사 연락은 전화 533-6911, 532-3491

백사와 도라지

80살·600년생

(서울25일=연합)강원도의 한 심마니가 수백년을 살은 것으로 추정되는 다년생 도라지를 발견했다.

지난 21일 모두 3뿌리를 발견한 김용국(65)씨는 이 도라지들은 600, 500, 350년생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600년생 도라지는 1.3Kg 나간다. 김씨는 도라지와 함께 80살로 추정되는 백사도 잡았다.

김씨에 의하면 600년생 도라지는 싯가 약13,500달러(미화)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장할레나씨 사망

2년간 위암투병끝에

토론토의 교포 장득남씨(가게 경영) 부인 헬레나씨(31)가 2년간 위암과의 투병생활끝에 지난 22일 스카보로 센테니얼병원에서 임종, 24일 상오11시 쎄인·폴 성당에서 조병기(바오로)신부 집전으로 장례미사를 지내고, 하이웨이 7×영·스트릿 근처의 홀리·크로스 가톨릭묘지에 묻혔다.

결혼축하

신랑 : 유승민군
신부 : 김명희양
일시 : 9월4일 12시
장소 : 한인 장로교회 1183 Davenport
주례 : 박희민 목사
피로연 : 뉴서울식당 (오리엔탈 팔레스 529 Bloor St. W.

교민동정

◆김창열(토론토한인YMCA총무)=뉴욕 한인YMCA의 초청으로 오는 28일부터 9월1일까지 한인 Y 프로그램 평가·교류협의등 자문(콘설탄트)하고 돌아온다.

한국교회의 문제점⑤

김낙중(해밀턴한인연합교회 담임)

이제까지는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강 건너 불보듯하면서 "나도 동감이야"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 얘기 나누다 보면 기분상하기 쉽다. 정당하게 반격하지 않고 악성 소문으로 공갈하는 풍토에서는 몸조심하는게 상책이련만, 실은 신문쟁이가 살살 꼬여서 이른바 〈이슈(issue)〉라는 걸 만드는 책략에 걸려들었다.

이민 교회의 분열상을 문제삼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의 분산화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고국에서 전국민 신자화 운동이 있듯이 전교민이 신자는 아니라는 현실에서 전교민의 복음화 운동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러한 이상은 교회수의 증가로 가능한 것일까? 이민초기기 아니라 적어도 이민이 집중적으로 모인지 십년여 지난 사회에서 새 교포 교회가 어떻게 생기는가를 살펴보면 교회의 난립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자명한 대답이 나온다.

대부분의 교포 교회는 기성 교단의 계획(New Church Development)과 지원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고, 단성생식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출현하였다. 바람에 실려온 잡초씨가 싹이 터서 어느날 갑자기 잔디밭에 잡초가 무성한 것을 보듯이, 장마후에 버섯이 비죽비죽 솟은 것을 발견하듯이, 교포사회에 잠간 무관심하다가 눈을 돌리면 그새 많은 교회가 새로 생겼음을 알고 놀라게 된다. 필요성이 인식되지 않는 터에 교회의 형성이 너무 용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란다.

새교회 출현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그것이 어느 교회에서 갈라져 나왔는가?"하고 자연스럽게 묻는다. 신뢰가 결여된 교역자와 회중 관계에서 혹은 우정에서 뿌리가 없는 떠돌이의 친목 단체에서 긴장이 생기면 창조적인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손쉬운 해결책으로 결별을 채택하게 된다. 등돌린 사람들이 분열의 아픔을 잊을 때쯤 되면, 다시 누가 Good Guy인가라는 송사에 휘말리게 된다. 그다지 윤리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흑백 논리에 젖어 스스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다.

소수의 비교적 오랜 역사와 많은 교민을 가진 교회들이 과도 성장을 견디지 못해서 부분이 떨어져 나감을 고의로 용납한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다. 목양의 능력을 생각하지도 않고 대교회주의의 망상에 사로잡혔던 초기의 공로자들이 조만간에 지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가족의 분가는 목회자와 회중 양편의 생기를 회복시키는 다행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임 목회자를 모시기에도 작은,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조차 분열하기도 한다. 그리고 형제가 갈라서는 일에 늘 그럴듯한 이유가 따른다. 형제가 화목하지 못하면서 한상 차리고 제사 지내기가 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를 한다. 그러나 형제가 왜 불화해야만 되는가?

작은 교회를 담임한 교역자는 헌금 강조를 한다. 십일조를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나 안하나 시험해보라고 복권 사는 것과 같은 심리를 조장하거나, 곳간에 알이 넘치리라고 장담하거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화를 들어 위협하기도 한다. 그런데 교인의 의무 준수를 강조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야단들일까? 헌금 강조를 빈정거리는 동역자들이 사실은 큰 교회 담임자들로서 저들은 이미 잘 살면서 보다 잘 살기(to live better)를 도모하는 반면에 비난받는 목회자는 살아남기(to survive)가 절실한 문제인데 성서적인 지극히 당연한 가르침도 침 한번 삼키고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는 동역자를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 야속한 처사가 아닐는지? 문제는 우리가 헌금을 왜 해야 하는가,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따르지 않는 데에 있다.

<사진 : 임정재>
◆카메라 하셀브라드 500cm. F8. 1/125. 80mm.

록키의 절경을 렌즈에

세계의 지붕 콜롬비아 자스퍼·파크의 아이스필드

〈독자의 광장〉

다시 8·15를 보내며

장정숙(토론토·스카보로)

제2차세계대전이 한창인 1944년, 그때 나는 여학교 2학년이었다.

어느 봄날, 등교하는 길에서 친구인 순희는 길옆으로 패어져 있는 방공호 위 가장자리를 걸으면서, "나, 조선사람 싫어!"하고 내뱉듯이 말하였다.

나와 또하나의 한국친구의 눈과 눈이 순간 마주치면서, "응, 그럴줄 알았어. 넌 공부를 잘 하니깐 반장이 되고 싶어서 그러지."하고 내가 쏘붙였다.(물론 우리의 대화는 일본말이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당분간 서로 멀어졌다. 물론 순희 자신도 그것을 원했던 것이다. 순희는 피부색이나 얼굴이 유달리 몽고계열을 닮아서 어느모로 보나 일본인 행세는 할 수 없는 처지였는데, 본인은 일본인의 닮은 꼴이 되려고 가없도록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 부모님에게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쩌다가 우리들은 일본인 학교에 보내져서, 전교생의 10분의 1도 못되는 조선인 학생으로서 언제나 필승을 다짐하는 일본인들의 독기(毒気) 서린 눈총과 입술의 화살을 받아가며, 긴장되고 서러운 여학생시절을 보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선인 학생들은 그네들의 눈을 피해가면 끼리끼리 행동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순희가 탈퇴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 순희는 지금 이름있는 외교관의 부인이 되어서, 태극기를 앞세우고 국제적 부인이 되었는데, 지금도 "나, 한국사람 싫어!"하고 다닐까? 하고 문득 생각이 난다.

우리는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다. 이 나라는 고맙게도 우리에게 자기네의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합문화를 권장하는 처지이다. 아무도 우리가 한국말을 쓴다고 독기서린 눈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혹시 우리 주변에 자녀들이 모국어를 모르고 영어만 하는 것을 헤벌레 좋아라 하고 계시는 부모는 없는지? 혹은 아무리 한국말을 가르쳐도 쉬 잊어버린다고 성급하게 체념해버린 부모는 안 계시는지?

언어는 잊어버려도 조국에 대한 체취는 남을 것이며, 그 체취는 훗날 2세의 인격형성에 큰 역할을 할뿐더러 부모에게는 대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조국은 우리에게는 친정같은 것이다.

친정없는 시집살이가 얼마나 서럽겠는가!

하루에도 몇차례씩 우리는 뉴스에서 팔레스타인의 나라없는 비극을 보고 듣고 있다. 또 근래는 일본인들이 그네들의 역사를 뜯어 '고치는 오만과 간교함을 천하에 공공연히 감행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분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중에라도 매국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강요에 의해 부득이 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바다건너 와 있다고 함부로 내 나라를 헐뜯고 비방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 37회 광복을 경축하는 예배를 보았다. 우리 목사님이 애국가를 프린트해서 나누어 주는 세심한 배려를 하셨고, ××집사는 갑사 남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사뿐히 앉아있는 모습은 퍽으나 고으셨다.

소리소리 떠들어대며 하는 애국도 있겠지만, 아무 소리 없이 저렇게 조출하게 애국하는 모습은 갸륵하게만 보였다.

예배끝에 애국가를 봉창할 때, 코 끝으로 찡하는 것을 느끼면서 나의 이 눈물이 값싼 감상에 젖는 것이 아닌가를 반성하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을 힘껏 불렀다.

한번오시면
계속 오시게 됩니다
★★★★ 서울식품서부지점 ★★★★
개업특별세일

배추김치·총각무·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큰 병 $6.99 ~~$9.50~~
●작은병 $4.50 ~~$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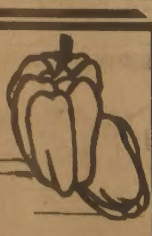
	SPEC	REG.
♧ 북어포	1.25	~~1.65~~
♧ 마른미역	1.99	~~2.50~~
♧ 물미역	.99	~~1.29~~
♧ 소 면	.89	~~.99~~
♧ 냉 면	.99	~~1.29~~
♧ 도라지	2.49	~~2.95~~
♧ 물오징어	.85	~~.99~~

※ 갈비·불고기·배추·무우는 도매가격으로 제공

쌀: 신품 대한 쌀 가주미 장미표 국보 경기미
사실때 는 삼양라면이나 삼양칼국수 3봉지씩 무료제공합니다. 쌀도 최저가격으로 팝니다.
박 영 조

주소 : 1391 WESTON RD. ☎ : 243-9544

도 매 업



○ 채소 ○ 과일 ○ 화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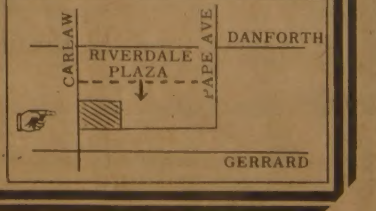
아직도 아침일찍 고생하십니까?

◈아직도 아침일찍 Food Terminal에 가셔서 고생이십니까? 제 도매가격을 보면 누구나 놀라십니다.

◈여러분의 큰 성원에 더욱 자신을 갖고 일을 하고 있사오니 직접 내방 Pick-up하시거나, 또는 주문해 주시면($150이상) 감사하겠읍니다.

〈취급품목〉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CUT FLOWER
— 화분
— HANGING PLANT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 465-8167 대표 곽덕열



특별신앙집회

장로교 신학대학장 이종성 박사님과 홍성현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 신앙 집회를 갖겠사오니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1982년8월29일(일)
· 오전11시 이종성 박사
· 오후7시30분 홍성현 목사

· 장소 : 1183 Davenport Rd. Tor. ONT.

주최 토론토한인장로교회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627A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K8
Phone: 533-7923
533-8344

협회원들의 협조간청

회관이전 모금위 조박사

한인회관 이전모금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동분서주중인 조한철박사는 장영대 부위원장을 동반하고 지난 23일(월) 본협회서 모금현황과 진행사정을 설명하고, 본협회원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하였다.

또한 조박사는 "지난 2개월간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부지런히 뛰어보았읍니다. 힘은 들지만 격려해 주고, 협조해 주시는 여러 교민들의 성원으로 5만달러에 상당하는 모금결실을 보았으나 30만달러라는 막대한 교민모금을 위해서는 교포사회의 경제적 기반이며, 중추인 실업인 협회원들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함을 깨달았읍니다. 아무쪼록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하고 언급하면서 협회의 예산이' 허락한다면 협회차원에서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하였다.

협회의 차회장은 본협회의 예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서만 집행될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나, 10월중에 정기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그때 회원들의 중의를 물어보자고 언급하였다.

◆(좌로부터)장영대, 차선검, 조한철씨

파나소닉, 경품부 거래 제의

—일등에 비데오·가젯·레코더—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37개 회원상점을 상대로 파나소닉 밧데리를 시험 판매한 결과 판매성적이 매우 양호하여 파나소닉 회사는 실협회원 상점과의 대폭 거래 확장을 희망, 아래와 같은 제의를 해왔다.

성수기를 앞두고 거래를 희망하는 협회원은 사무실(533-7923)로 연락 바란다.

(1)10, 11, 12월의 3개월간 매월 1회 파나소닉 밧데리를 취급하는 K.B.A.회원을 상대로 8개의 복권을 추첨하여 싯가 $34.95의 계산기(Panasonic compact solar cal cula tor) 한개씩을 상품으로 제공한다.

(2)12월말에는 싯가 $1,599.95에 해당하는 비데오 가젯 레코더 1대(Panasonic VHS unit PV1470)을 상품으로 추첨한다.

(3)본추첨을 위한 복권의 배부방법은 아래와 같다.

8개의 밧데리 걸이(상품포함) 매입 복권 10매

1개의 추가 밧데리걸이(상품포함) 매입 복권 2매

10개의 밧데리 추가 매입 복권 1매

(4)동시에 $150.00(원가) 이상의 밧데리 매입시는 밧데리 시험기(tester)와 2매의 윈도우 싸인을 무료로 제공한다. 예를들면, 8개걸이의 상품과 70개의 추가 밧데리를 매입하는 회원(약 $150상당)은 17매의 복권과 밧데리시험기, 2매의 싸인과 소매가격의 48.5% 이윤을 받게 된다.

(5)신청은 협회사무실(533-7923)에서 접수하고, 상품은 업자가 상점으로 배달한다.

◆밧데리·테스터

외국인 상점 협회가입 희망

협회사무실 담당자에 의하면 근간 외국인의 협회가입 희망수가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협회는 한국인이 경영하고 있던 상점을 외국인이 인수하는 경우, 거래상품과 조건의 급변으로 초래될 사업상의 지장을 고려하여 본인이 원하고 인근 본협회원에게 가격 경쟁을 초래하지 않을 범위내에서 협회가 제공하는 준회원으로서의 혜택을 계속받게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인 상점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많은 외국인들이 협회에 가입신청을 해오고 있다.

지난주에는 협회의 준회원에 대한 규정을 설명해 주고, "가입신청을 미안하지만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니까, "인종차별"행위라고 Human Rights Commission을 통해 항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인종차별에 대한 불평을 거꾸로 우리가 받게되었으니 다행한 일이라고나 해야 할지?

P.C.O.와 협정체결

월1회 살포에 $7.50

지난3월 Globe Pest Centrol 회사와 더불어 협회원 상점에 대한 Pest Control협약을 체결한바 있는 본협회는 제2의 지정업자로서 캐나다 최대의 Pest Control회사인 P.C.O.사와 더불어 월$7.50에 협정가격을 체결하였으며, 협회원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한다.

협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1.밀크스토어와 버라이어티스토어만 해당되고, 식당, 공장, 차고, 피복점은 해당되지 않는다. 가게의 넓이에는 제한이 없다.

2.월1회 살포한다.

3.살포시간은 상오8시30분부터 하오4시30분 사이이다.

4.대상은 바퀴벌레와 쥐이다.

5.적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1)상점내부
(2)화장실
(3)배룸과 지하실
(4)소요시간 5~8분

6.PCO 위생증명서를 제공한다.

7.바퀴벌레와 쥐로 인한 비상 써비스는 무료이고, 실시날짜는 PCO가 결정한다.

8.기타 써비스에 대하여는 K.B.A.회원에 한하여 20% 할인한다.

9.계약기간은 1년(12개월)이다.

10.금액은 월1회 $7.50이고, 지불방법은 C.O.D.이다.

식품값 계속상승예상

오타와발 (케네디언 Grocer)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5월의 식품가격은 평균적으로 4월에 이어 계속 상승하였다고 한다. 주원인은 가축가격 인상으로 돼지고기와 쇠고기값이 뛰어오른데 있다고 한다. 예를들어 토론토에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값이 각각 10% 상승하였고, 파일, 야채(가공), 음료, 낙농제품의 가격은 약간의 상승을 보였다.

이러한 물가의 상승은 닭고기, 계란, 씨리얼, 빵종류의 하락, 특히 설탕과 야채의 하락으로 일부 상쇄되기는 하였다.

설탕의 소매가격은 세계적인 원당가격의 약세때문에 떨어졌고, 야채가격은 캘리포니아의 상추공급 급증으로 하락하였다.

6월에는 여전히 강세인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으로 인해 전반적인 식품가격이 상승하였다. 가축의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5월의 가축가격 급증으로 인해 당분간 쇠고기 값은 계속상승 할 것이 보이고, 돼지고기 값도 5월 갈지는 않으나, 역시 계속 오를것으로 내다 보인다. 계절로 인한 청과의 가격인상은 6월이후의 식품물가지수를 계속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대비 5월의 주요식품물가변동은 다음과 같다.

쇠고기+8.2%
돼지고기+9.3%
닭고기-2.7%
계 란-0.1%
낙 농 제 품 +0.7%
씨리얼·빵제품-0.5%
청과+2.3%
야채-1.8%
지방·기름종류+0.4%
설탕-4.8%

〈법률상담〉

조건부 유증 6

Ralph M. Levine 강 공 선 역

유서에 의한 유증이 종종 일정한 조건부로 이루어지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 조건은 선행조건(precedent)일 수도 있고, 후속조건(subsequent)일 수도 있다.

선행조건이란 수익자가 유증을 받기 전에 일정한 행위를 완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조건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1)나는 조카인 김철수에게 그가 18세가 되면 $5,000을 유증하기로 한다.

(2)나는 나의 가게 운영에 필요한 모든 동산, 부동산을 아들인 남수에게 그가 그 가게를 계속 운영한다는 조건하에 유증한다. 아들 남수가 이 가게를 계속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신탁인으로 하여금 그 가게를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나의 자식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한다.

이상의 조건은 둘 다 보편적인 것으로서 법원에서 인정이 되고 있는 것들이다.

다음 후속조건이란 수익자가 당장 유증을 취득하되 특정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것이 그러한 조건의 예들이다.

(1)나는 나의 조카인 김영숙이 결혼을 안한다면 1년에 $5,000씩을 유증하기로 한다.

(2)나는 나의 아들에게 "무스코카"에 있는 별장을 그가 가톨릭교 신자가 아닌 사람과 결혼한다는 조건부로 유증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카인 김영숙에게 유증한다.

이러한 조건은 법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러한 예는 법원에서 승인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조건은 사회정의에 위배된다는 의미에서 기각되는 예도 많이 있다. 첫번 예에서 결혼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조건이므로 대개는 무효가 된다.

유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위험성이 내포된다. 왜냐하면 첫째, 법원에서 이 조건은 사회정의에 위배된다 하여 무효로 판결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수익자는 무조건으로 유증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법원에서 이 조건은 정상적인 정신상태의 인간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판정하여 정신력 결핍으로 유서 전체를 기각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효한 유서를 작성하려면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정신능력의 법적검사에 대해서는 누가 유서를 작성할 수 있느냐 하는 제목을 앞으로 다룰 때에 재론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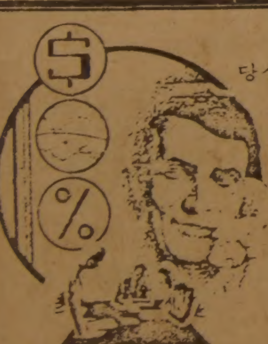
따라서 조건부 유증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을 해야 한다. 꼭 조건을 붙이고 싶으면 그 조건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243-9544
1391 WESTON RD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실협회원만이 가입할수있는 단체상해보험



당신의 가장 귀한 재산은 수입을 보장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CAROLINA LIFE & ACCIDENT INSURANCE COMPANY 는
당신의 수입의 손실을 보호해드립니다.
◇사고 당일부터 현금으로 드립니다.
◇별도 지정인이 없는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정부나 기타 보험회사의 보상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해 드립니다.
◇직장내외를 막론하고 24시간, 365일 보호합니다.
전화 224-2235 DEAN VERNON 을 불러 주세요.

SKYWAY BUSINESS MACHINES
SPECIAL 30% OFF FOR K.B.A. Members
1. 각종전자계산기 수리
2. PAPER ROLL (Each Case=100 Rolls)
3. NCR STYLE (수동식).

◆계산기 수리 ◆복사기 ◆계산기 ◆금전등록기
SHARP 3M, MITA COPYSTAR, IBM
SALES, LEASING, REPAIRS & SERVIC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B)675-1295~6. (R)671-0938

한인실업인 협회지정

GLOBE PEST CONTROL
"WE KILL BUGS"
Residential.Comm.Industrial
MONTH FLAT : $8
NO INITIAL CHARGE
※다른조건의 비용청구는 없음
전화주시면 즉시 달려가겠읍니다
WE'RE SMALL BUT WE'RE GOOD
ASK ABOUT OUR WRITTEN GUARANTEE
GOV'T LICENSED 491-1585 FREE ESTIMATES
789-2527

1 BOX(48 PKGS) $13.10
술안주·다이엘용 스낵으로
한번 잡수어 보신분은 꼭 다시찾는 알버타산 순 쇠고기 포!
본인은 금번 본사와 온타리오주 총판권 계약을 맺고 소매상을 경영하시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온타리오주에서는 처음 취급되는 비프 절 —키를 판매중 이오니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즉시 배달해 드리겠읍니다.
BIG CHIEF ONTARIO 총판
정세용 244-2483

15億弗 建設수출 합의

韓·나 2次頂上회담

重電器機 플랜트 參與도

【라고스=尹國炳특파원】 나이지리아를 방문중인 全斗煥대통령은 21일 새벽(한국시간) 샤가리대통령과 제2차頂上회담을 가진데이어 나이지리아 駐在外交團 접견리셉션에 참석했으며 하오에는 베뉴州수도인 마쿠르디를 시찰했다. 全대통령은 22일상오 샤가리대통령주최 만찬에 참석하고 하오에는 3泊4日의 나이지리아방문을 決算하는 共同聲明에 서명한뒤 무르탈라·무하메드공항을 떠나 3번째 방문국인 가봉으로 향발한다.

全대통령、오늘하오共同성명 가봉向發

이에앞서全대통령과 샤가리나이지리아대통령은20일밤 11시10분(한국시간) 대통령궁에서 19일의 제1차 회담에이어 제2차頂上會談을 갖고 經濟협력문제를 중심으로 한 양국의 공동관심사와 현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약2시간동안 계속된 이날 회담에서 양국원수는 韓半島와 東北亞그리고 아프리카정세등 국제정세와 아시아 아프리카협력의 새시대를 열기 위한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문제, 開途國간의 힘의 조직화및 反植民주의路線의 공동 추구 필요성에 관해 계속 토의, 이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특히 한국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관해 샤가리 대통령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라원수는두나라가 과거 모두 異民族 지배하에 있었다는데에 留意하고 다시는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거나 경제적으로도 수탈당하지 않아야한다는 反植民主義 노선에 의견을 같이하고 두나라가 외국으로부터 內政간섭이나 간접침략을받지않도록 엄격히 경계해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의일치를 본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대통령은 開途國으로서 양국이 앞으로 경제협력은 물론 각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한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원수는 또 이날 회담에서 지난10년간 양국간의交易額이 10배나 늘어나고 修交후 불과 2년밖에안된 양국간의 人的교류가 급증하는등 두나라사이의 우호 협력발전이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앞으로의 무한한 가능성에 만족을 표명하고 각분야에걸친당면 경제협력방안에관해구체적인 협의를가진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원수는 특히 이날회담에서 경제협력문제와 관련, 農水産 製造 건설부문및 수출진흥방안및 민간부문교류 촉진방안등을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한것으로 알려졌는데 農水産부문에 있어서는 한국측의 營農기술지원, 농기계분야의 기술협력, 수산분야의 협력등에 관해 합의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설부문에있어서는 아부자 새수도건설과 관련, 도로및 上水道공사등의 한국참여와 이밖의 건설참여문제등에 관해서도 중점적으로 협의한것으로 보이며 제조부문에서는 重電기기 제작수리공장건설문제등이 다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원수는 이밖에도 한국의 철도·차량수출문제와 민간부문교류 촉진을위한 實業人합동회의 활성화문제를 논의했으며 건설기술훈련에 관한 협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된 경제협력방안에 따라 한국측이 나이지리아의 각종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될경우 그受注額은 15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곳 나이지리아에서는 주식회사 漢陽의 소코트州호텔및 아파트團地건설공사를 비롯, 현재 三星·大宇 등이 支社를 설치, 활동하고 있다.

合作銀개점 참석 營農현황도 시찰

【라고스=尹國炳특파원】 全斗煥대통령은 나이지리아 방문사흘째인 21일상오(현지시간) 나이지리아 중부지방에있는 베뉴州를 방문, 이곳의 종합농장을 시찰하면서 영농현황을 살펴보았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아우드외상의안내로 라고스를 떠나 보잉737기편으로 베뉴州의수도 마쿠르디에 도착, 아쿠州지사의 영접을 받은뒤 다시 헬리콥터로 바꿔타고 종합농장을 방문했다.

判事 2百98명 大法、人事이동

대법원은 21일 고법판사15명을 지법부장으로, 지법판사 23명을 고법판사로 각각 승진시키고 지법부장33명 고법판사1명 지법판사 1백17명을 전보하는등 모두 2백98명 (판사현원의56%)의 법관에대한 승진및전보·신규임용 인사를 9월1일자로 단행했다.

PLO、레바논撤收 개시

어제 美·佛海軍 호위속

제1陣 키프로스 向發

【베이루트·예루살렘20日AP·路透=聯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대원들의 西베이루트철수작전이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 77일째인21일하오 (이하 한국시간)드디어 개시됐다.

이軍 일부陣地이양、시리아軍은 再配置

◇西베이루트 둘러보는 아라파트 議長 20일 하오 西베이루트를 둘아보고있는 야세르·아라파트 PLO의장. 【베이루트20日AP綜=聯合】

이탈리아의 ANSA통신은 이에앞서 다국적평화유지군의 프랑스軍선발대가 이날 정오 베이루트에도착하며 그 6시간후인 하오6시 6백명의 부상자를포함한 PLO대원제1진이 프랑스및 그리스의 민간선박에 탑승, 미국과 프랑스해군의 호위를 받으며 키프로스의 라르나카로 떠났다고 보도했다.

PLO대원들의 西베이루트철수를 위한 선행조치로서 이스라엘군은 21일상오1시 국군이 장악중이던 베이루트港의 진지를 레바논군에 넘겨주었고 PLO는 이스라엘 조종사 아하론·아지즈와 18일밤 PLO대원들에게 납치됐던 이스라엘군 병사 론·하루시를 석방하는 한편 난78년의 레바논공격때 사망한 이스라엘병사 9명의유해를 돌려주었다.

베이루트의 소식통들은 PLO대원들의 해상철수가 24일까지 계속되며 그후부터는 전장 1백10㎞의 베이루트-다마스커스고속도로를 통한 철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키프로스의 라르나카로 해상철수하는 PLO대원들은 그곳에서 원래의 목적지로향하게된다.

라르나카로 떠나는 PLO대원중에는 바드르군으로 불리는 요르단국적의 대원과 이라크국적의 아랍해방전선(ALF) 대원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해병대 8백명、프랑스공정대 8백명、이탈리아 보병5백30명등 모두 2천1백30명으로 이루어지는 다국적 평화유지군중 프랑스군 선발대 3백50명을 제외한 1천7백80명은 오는26일 배치를 완료한다.

한편 이스라엘은 西베이루트에 PLO대원들과함께 갇혀있는 시리아군 85여단의 1천5백여병력도 레바논에서 떠나야 한다는 당초의 주장을 철회함으로써 이들은 레바논동부의 베카계곡에 재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明星그룹 私債58億

소득세 17億추징·架空사채24億

安국세청장、國會재무위서 답변

安武赫국세청장은 20일하오 지난5월12일부터 6월10일까지 明星그룹에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사업자금출처를 중점조사했다고 말했다.

安청장은 이날 국회財務委에서 金承穆 의원등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明星그룹 총자산 1백95억1천3백만원중 出資金이 55억3천6백만원、골프회원권 판매대금이 1백13억3천8백만원、은행차입금26억3천9백만원으로 되어있으나 조사결과 출자금중38억7천8백만원이 私債이고 골프회원권 판매대금중 20억1천만원도 私債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安청장은 또 나머지 골프회원권 판매금중 24억3천7백만원도 가공私債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安청장은 따라서 1백95억1천3백만원에 달하는 明星그룹의 총자산명세는 ▲출자금16억5천8백만원▲골프회원권판매대금68억9천1백만원▲은행차입금26억3천9백만원▲私債58억8천8백만원으로 私債업자명단을 모두밝혀내 17억2천5백만원의 소득세를부과, 15억원을 납부받았으며 나머지 2억2천5백만원은 8월말까지 징수토록하겠다고 밝혔다.

공직財産등록 實效性에의문

朴총무처장관

政府와 民正黨은 21일 公職者재산등록제실시의 재검토등 실시에 따른 문젯점에 관해 협의했다.

朴贊競총무처장관은 이날상오 民正黨으로 陳懿鍾정책의장을 방문, 實名去來制의 실시로 公職者倫理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견해를밝혔다.

陳의장은 요담을 끝낸뒤 『朴장관이 實名制실시에 따른 등록제의 실효성감퇴우려와 함께 등록대상자 범위도 결정하기 어렵다는 의사를밝혔다』고 전했다.

日公使불러 是正 재촉구

외무부 교과서 歪曲문제에

외무부는 21일하오 고또오(後藤) 駐韓日本공사를불러 역사교과서歪曲에관해 日本측이 명백한 시정방침을밝힐것을 다시 촉구했다.

이날 崔東鎭아주국장은 고또오공사에게 『교과서歪曲문제는 우리국민들의 對日감정이 극도로 악화될정도로 인식하고 이에대처해야할것』이라면서 『日本정부는 歪曲부분을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밝히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교과서문제와 관련, 지난 17일 정부협의를위해 일시본국을 다녀온 고또오公使는 이에 대해 『日本정부는 이문제와관련, 각部處간의견을조정하고있으며 27일이전에 日本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발표될것으로안다』고설명한후 한국정부의 입장을 본국에다 시보고하겠다는뜻을비쳤다.

群山商、감격의 첫霸權

봉황대기高校야구 在日동포를 4-1제압

최우수선수賞 吳錫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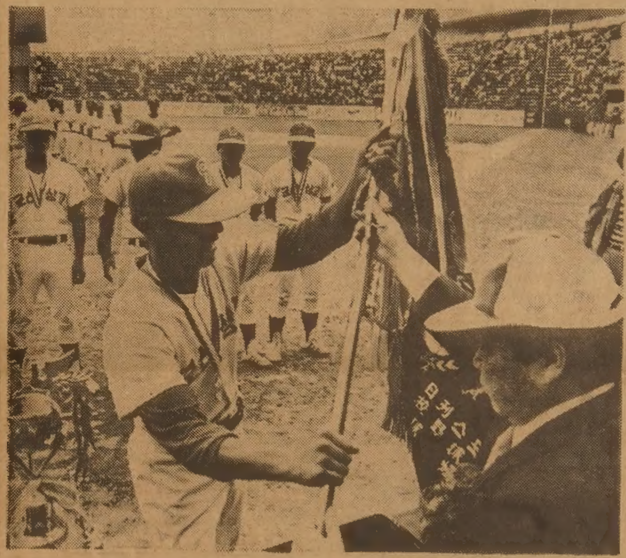
봉황은 湖南야구의 기수群山商고아의 머리위에 나래를 접었다. 群山商은 4만여 팬들의 환호속에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제12회 봉황대기 쟁탈전국고교야구대회최종일 결승전에서 피로에지친 在日同胞수비실책에 힘입어 4-1로 승리, 이제껏 한번도오르지못했던 봉황대기 정상을 밟았다.

74년이후 두번째 결승에올랐던 在日同胞학생팀은 초반 2실책으로 분패, 또다시 준우승에 그쳤다.

釜山高는 결승전에앞서 벌어진 3、4위전서 光州一商에 3-0으로 승리, 3위를 차지했다.

폐회식에서 한국일보 洪惟善발행인은 群山商투수 李東錫에게 영광의 초록봉황대기를 수여했으며 在日同胞는 주홍 봉황대기、釜山高는 자주 봉황대기를 받았다.

우승팀 群山商주장 吳錫煥은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차지했으며 승리투수 趙啓顯은 최우수투수상을 받았다.



◇초록 봉황대기받는 群山商 폐회식에서 한국일보 洪惟善 발행인이 우승팀 群山商 투수 李東錫에게 초록 봉황대기를 수여하고 있다.

日單一案 마련 실패

文部省고집

【東京21日=宋孝彬특파원】 일본정부는 교과서문제에 대한 통일된 정부의견을 매듭짓기위해 21일 미야자와(宮澤喜一) 관방장관주재로 외무·문부성 간부회의를 열었으나 양측의견이 맞서 결국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

이날 외무성측은 왜곡된 대목을 즉각 고치자고 주장한데 반해 문부성은 84년 정기검정때 고쳐야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따라 23일에 있을 예정인 스즈끼(鈴木善幸)수상의 기자회견에서도 이문제에 관해 구체적 언급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社會漫評

奧地 하늘에 두둥실…

地平線

미국의 웬만한 대통령이름밑에는 독트린(主義)이란 글자가 붙게된다. 아마도 그중 숱한 독트린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몬로·독트린」일 것이다. 2차대전후에 얼른 손꼽히는것만 해도 「트루먼·독트린」「아이젠하워·독트린」「닉슨·독트린」「카터·독트린」이 있다. 대통령 스스로가 그의이름에 독트린을 붙이지는 않는다. 中世의 法皇이 유럽 王들에게 왕관을 씌워주듯이 미국의 신문들이 그들대통령이름에 독트린을 달아준다. ▼「레이건·독트린」이라고 하면 多大數 미국사람들에겐 생소한 용어가된다. 81년 여름 미국의 時事주간지 「유에스뉴스 앤드 월드리포트」誌가 「레이건·독트린」이란 표제아래 기사를 실은 적이 있다. 「레이건·독트린」은 그때 單發로써 끝난것으로 기억된다. 다른 미국신문、잡지、TV들이 「유·에스·뉴스」誌가 성급하게 레이건에 달아준 독트린에 共感치 않은것이다. ▼「레이건·독트린」은 미국신문들의 대접을 못받아 미국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아시아에 관한 「레이건·독트린」을 한국의 한朝刊신문이 크게 보도하자 다소 劃一的경향을 띠는 한국신문들이 뒤따라 이기사를 돋보이게 보도했었다. 레이건·독트린은 미국보다 한국에 더많이 소개되었는지 모른다. 레이건의 反蘇聯合정책은 유럽동맹국간에 不協和音을 빚어내고있으나 아시아에서는 순조롭게 形成되어 가고 있다는것이 「유에스뉴스」誌가 설명한 내용이었다. ▼이 레이건정책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것이 군사력 증강에의한 아메리카 第一主義다. 右傾化다. 모방잘하는 일본은 레이건의 右傾化를 본뜨고있다. 反蘇라는 이름아래 軍國主義경향으로 흐르는 日本第一主義가 고개든 것이다. 「脫亞論」과 一脈이 통하는 日本民族 優越論이다. ▼反蘇聯合의 右傾化는 中共에서도 호응을 얻어왔다. 소련서 멀어져 미국쪽으로 右旋回方向을 잡은것은 毛澤東이다. 하지만 「斥蘇聯美」정책을 뿌리내리게한것은 鄧小平이다. 「文化革命」때 鄧小平은 走資派로 몰렸다. 자본주의 길로 빠져든다는 走資派란 西方式으로 말하면 右派가 된다. 右傾化다. 그鄧小平이 中共의 고삐를 잡고있다. 아세안(東南亞國家聯合) 5개국도 주로 소련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미국쪽으로 右旋回했다. 한국도 右傾化한 아세안과 손잡았다. 右傾化는 아시아의 한 풍향인가.

한국일보
우리의建國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제1회 교회음악 강좌

본 대학에서는 평신도 여러분들에 교회음악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제 1회 교회음악 강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이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1982년 8월3일, 10일, 17일, 24일, 31일
매주 화요일 오후 6시~9시50분까지 (5주동안)
◉장 소: 754 INDIAN RD, (오순절장로교회)
◉강좌내용: ▲성악-발성법, 발성연습및 지도(이주연교수 담당)
▲교회음악사-교회음악의 유래및 발달과정 연구(유회자교수 담당)
▲성가대운영론과 실제-성가대운영 방법론및 찬송가 해설(박재훈 교수 담당)
◉참가대상: 교회음악에 관심이 있는분, 일반교우, 성가대에 봉사하는 분들.
◉등록일자: 1982년 8월3일 오후5시30분까지
◉회 비: 1인당 $70
◉등 록 처: 754 INDIAN RD, (본 대학 서무과)
◉문의및 연락: 762-1495, 493-8894, 745-7370

1982학년도 미주장로회 신학대학(토론토 캠퍼스)

신·편입생 모집요강

본 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생을 모집하오니 사명있는 많은 분들의 응모있으시기 바랍니다.

과정	과 구 분	자 격	수업연한	취득학위	특 전
학위	교역(신)학석사 (M.Div)	①수세후 2년이상자 ②정규대졸업자, 동등이상자	3	교역(신)학석사 (M.Div)	①졸업후 총회고시를 거쳐 노회에서 안수한다. ②졸업생전원은 본총회와 모국총회산하에서 활동한다.
	신학사과정 (B.A)	①수세후 1년이상자 ②고졸자 동등이상자	4	문학사 (B.A)	①졸업후 교역학, 기. 교육학과 2년에 편입된다. ②졸업생전원은 본총회산하에서 전도사가 된다.
	교회음악과	①수세후 1년이상자 ②고졸자 동등이상자	4	교회음악학사 B. MUC.	①음악목사코스 ②졸업생은 노회에서 시행하는 장로고시 일부가 면제.
	교회음악석사	①음악학사 학위소지자 ②수세후 1년 이상자	2	교회음악석사 M.C.M	①음악목사코스 ②졸업생은 노회에서 시행하는 장로고시 일부가 면제.
비학위	성서과	학력제한 없음 ①수세후 1년이상자	2	수료증(노회인정)	졸업후 심사하에 본교에 진학할 수 있음.

1) 원서교부, 접수: 본대학교무과(오순절장로교회)
및 시험 장소 754 Indian Rd., Toronto, Ont.
M6P 2E3 전화: (416)762-1495
2) 원서접수마감일: 1982년 9월6일(월) 오후5시30분
3) 전화문의할 곳: 762-1495, 746-2870, 745-7370, 881-7162, 493-0615
4) 구비서류: 1. 입학원서
2. 최종학교졸업증서및 성적증명서
3. 당회장 추천서
4. 사진 3매 (명함판)
5. 전형료 $50.00 (시험당일 지참)
★시험과목: 성경, 국어, 역사, 일반상식
5) 시험일시: 1982년 9월6일 오후6시부터
시험장소: 본대학 강의실
6) 합격자발표: 1982년 9월6일 당일발표
7) 수업시간: 월, 화, 목 오후6-10시
8) 등록금: 학위과정 학점당 30불, 비학위과정(성서과) 100불
9) 개교일시: 1982년 9월7일 오후6시(신입생 Orientation)

★본대학 교육기본방침
1. 미주한인장로회총회 헌법에 기준, 교역자 양성과 평신도를 훈련한다.
2. 장로회신학대학(서울 예장통합측)과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형성한다.
3. 소명의식이 투철한 인재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주어 복음사업에 동참케 한다.

★학장자문위원(Consultants)
1. 이종성 박사(장로회 신학대학<서울>학장)
2. Dr. Michael D. Ryan(Prof. of Drew Unv.)

미주장로회 신학대학 토론토분교장 최 양 선

毛澤東주의 테러犯 送電塔폭파

暗黑天地속 약탈·輪禍

페루에 最惡의政治폭동 首都리마등 非常선포

【리마(페루)20日 UPI聯合=聯合】 페루정부는 2년전 페르난도·벨라운데 대통령취임이래 최악의 정치적폭력사태가 발생한데 이어 20일 수도 리마와 인근 카야오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마누엘·우요아수상은 이날 비상각의를 마친뒤 비상사태를 발표하고 이에따라 비상사태대상지역의 경우 국민의 헌법상권리가 유보되고 경찰의 수색, 체포권한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페루의 비상사태는 毛澤東주의세력으로 보이는 테러분자들이 19일밤 리마市외곽의 송전탑 5개를 폭파, 인구6백만의 수도 리마와 다른 10여개시를 암흑으로 몰아넣고 상점과 공공건물들을 약탈함에따라 취해진 것이다.

페루당국은 이 고압선폭파사건으로 전인구의 절반인 9백만명이 암흑상태에 빠졌으며 정전된 암흑의 도로상에서 2명이 차에 치여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80년 7월 벨라운데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발생한 8백건이상의 테러가 급진 毛주의 집단인 센데로·루미노소(빛나는 오솔길)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테러분자들은 벨라운데 대통령이 취임하자 벨라운데 정부에 대해 무력전쟁을 선언한바 있다.

波 자유노조 大示威 준비

【바르샤바20日UPI=聯合】 폴란드의 군사지도자 보이체후 야루젤스키는 20일 자유노조지하운동이 최근 자유노조탄생 제2주년이 되는 오는31일을 기해 대규모 군중시위를 준비중인 것에 대비, 각지역방위당국에 대해 법과 질서의 테두리안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두라고 명령했다.

야루젤스키는 이날 지역방위에 관한 특별회의에서 그와같이 명령하고 국내의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도 고려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자유노조측은 지난 2주동안 바르샤바를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소규모의 반정부시위를 벌이는 한편 포스터와 전단을 통해 자유노조의 결성을 허락한 그다니스크협정체결 제2주년인 오는31일 대규모군중시위를 벌이도록 촉구하고 있다.

佛, 極左派12명체포 反이 테러行爲혐의

【파리20日UPI=聯合】 파리경찰당국은 20일 파리에서 최소한 4건의 反이스라엘 테러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불법極左派단체 「악숑·디렉트」의 단원12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平和통일 公約안해"

中共, 美의 臺灣무기판매 推進비난

【北京20日AP=聯合】 중공관영 新華社통신은 20일 미국이 미중공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 臺灣에 대한 새로운 제트전투기 판매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중공은 臺灣문제의 평화적해결을 공약한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통신은 『미국의 對臺灣무기판매에 관한 미·중공공동성명이 발표된지 3일만에 미정부는 전투기60대의 對臺灣생산계획을 서둘러 의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통신은 이어 『중공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이해하기가 곤란하며 앞으로의추이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全大대의원 선발

【홍콩20日=聯合】 중공당은 오는 9월1일 개막될 제12차전국대표대회(12全大會)에 참가할 정대표와 후보대표 1천6백명을 이미 선발했으며 이중 5분의2에 해당하는 약 6백50명이 중·청년으로 교체됐고 여성대표도 2백여명을 차지하고 있다고 20일 중공관영新華社통신이 보도했다.

중공당은 지난 80년 하순의 당제11期 5중전회에서 12기당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수를 1천6백명으로 결정했으며 지난7월하순까지 대의원선출을전부마쳤다고 新華社통신은설명했다.

이 대의원선출에서는 젊은세대외에도 각분야의 전문가와 소수민족의 대표들이 지난 당대회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선출됐다고 이 통신은 말했다.

쇠고기 輸入

주간女性

농수산부는 하반기들어 수입쇠고기 수요가 크게늘어남에따라 쇠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올해 쇠고기수입량을 당초 2만9천톤에서 3만9천톤으로 1만톤을 늘리기로 했다.

21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쇠고기수요량을 10만7천톤으로보고 국내공급량 이외의 절대부족량 2만4천톤과 상시비축량을 포함, 2만9천톤을 수입키로했으나 하반기들어 韓牛출하가 크게준데다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 수입쇠고기 수요가 크게늘고있어 수급및가격안정을위해輸入量확대가불가피하다는것이다.

수입쇠고기 방출은 지난1월 하루평균 6백70마리에서 3월 5백80마리로 감소하다 5월 7백50마리, 6월 8백70마리, 7월 1천50마리, 8월 1천2백마리로 하반기들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7월말현재이미 12만마리(2만톤)가 공급됐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881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 漫畫)

"여보, 당신은 아직도 뒷문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만해 둬" "「여자가 하는 일은 끝이 없다」는 옛말은 어떻게 됐지?" "당신에게 「바가지 긁는것」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메아리

越鳥

미국을 여행했을때 시카고에서 본 한국 할머니의 모습을 오래오래 잊을수없다. 할머니는 한적한 주택가의 네거리에 혼자 나와 우두커니 서있었다. 자식들을 따라와 만리타국에 떨어진 것이리라. 하도 심심하여 길거리에 나와 보았으나 행인이라고는 인사할 사람없는 낯선 외국인들뿐, 할머니는 눈길을 허공에 대고 흘러가는 구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뒷짐을 쥔채 그렇게하염없이 오래도록 꼼짝 않고 있었다. 여행객으로서도 불현듯 고향생각이났다.

외국에 장기체류를 하거나 이민간 사람들은 노부모의 鄕愁를 위안해 주는것이 큰 걱정거리가 되어있다. 잘사는 나라에와서 생활은 풍족해졌으나인생이란것이 어디 그게 모두던가. 이따금씩은어릴적에 뛰놀던 골목길도 걸어보고 동창생들을 만나 히히닥거리기도 하고 선산에 가서 새로 돋아난 풀도 뜯고 하는낙이 없다면 아무리 배불러도 마음은고프다.

北狄의 말은 먼곳에 와서도 북풍이불적마다 머리를 북쪽으로 돌리고 南國의越나라에서 날아온 새는 언제나 남쪽가지에 집을 짓는 법이다.

비단 移民의 경우 뿐이아니다. 박에나가 제조국을 헐담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영원한 歸鄕心은 常情일것이다.

오랜만에 우리는 세계적 작곡가 尹伊桑의 음악을 들을수있게 되었다. 올가을 대한민국음악제는 연이틀을 「尹伊桑작곡의 밤」으로 정하고 그의 작품 8곡을 연주한다고 한다.

서독의 한 작가가 尹伊桑과의 대담을 통해 그의 인생과 작품에 대해 책을 낸것이있다. 이책에서 尹은 그의 어린시절을 다음과같이 회상한다.

『세살때 나는 統營(지금의 忠武市)에 왔다. 통영은 당시 어업으로 유명한곳이었다. 바다위에는 어선들이떠서 밤에는 별이 총총한 하늘밑에서 어부들의 노래소리가 이배에서 저배로 흘러가고 아침이 되면 어시장의 좁은길에서 수천마리의 은색고기들이 파닥이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따금 나를밤낚시에데리고 갔다. 그때 나는 가만히 배위에앉아 고기가 뛰는 소리와 다른 어부들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南道唱이라 부르는 침울한 노래였는데 수면이 그음향을 멀리까지 전해주었다. 바다는 共鳴板같았고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다. …다른 음향의기억이라면 개구리소리가 있다. 봄이 되어 논에 물이 괼때가 되면 밤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요란했고 그소리는 예술적으로 구성된 혼성합창같았다. 낮에는 아낙네들이 밭에서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여인들은 옛날 민요를 불렀고 우리 어머니도 따라불렀다. 어머니는 목소리가 고왔다. …내 작품「南無」는 1971년에 쓴것이지만 내가 이 곡에서 음악적으로 표현한 체험은 어린시절의것이다. 어부가 물에 빠져죽거나 하면 무당들이 주문을 외며 노래를 불렀다. 情景으로서도 음악으로서도 아름다운 것이었다. 나의 다른 작품의 어느것에서도 내어린시절의 聽覺的인상의 뚜렷한 흔적을 찾아낼수 있다.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정말 아름다운 나의어린시절이었다』

尹伊桑은 이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않느냐는 물음에 다음과같이 대답하고 있다.

『나는 내나라를 다시한번 보고 싶은생각이 간절하다. 우리 가족중에 선조들의 흩어진 무덤 위치를 알고있는것은 나밖에 없다. 무덤이 무너졌는지, 묘비가 쓰러졌는지. 물론 친척이나 옛친구들도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인생의 만년에는 한국에서 살기를 원한다. 한국은 나의 고향이요 언제까지나 그렇다. 나는 그땅에 묻히고 싶다』

金聖佑 <編輯委員>

설탕小便…심한갈증

合併症 조심… 食事요법을

糖尿病

당뇨병은 글자그대로 소변속에 많은 양의 포도당이 섞여 나오는병이다. 건강한사람은 소변속에 거의 당이 섞여 나오지 않지만 당뇨병이 되면 하루에 40~50g의 포도당이 나오는 것은 보통이고 많은 경우엔 3백~4백g이 배설된다. 이정도가 되면 오줌이라기보다 설탕물이란게 낫다. 소변양도 많아져서 하루에 3~7ℓ(정상인은 1~1.5ℓ)를 보게된다.

당뇨병의 원인은 췌장(膵臟)에서 비롯된다. 췌장은 위의 뒤쪽 바로아래 십이지장의 구부러진(彎曲)부위에 옆으로 길게 가로누워 있으면서 머리부위는 크고 꼬리는 가느다란 15cm정도의 장기(臟器)이다. 무게 65~75g정도의 췌장은 소화액인 췌액을 만드는 소화선(消化腺)인 동시에 인슐린이라고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선의 역할을함께한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변화시켜 간장(肝臟)과 근육에 저장하는가하면 포도당을 태워(酸化) 몸에 필요한 에너지로 바꿔주는 일을한다.

따라서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양이 모자라면 몸속의 당(糖)이용률이 나빠져 자연 혈액속에 당이넘쳐흐르게된다. 그래서 오줌속에 당이 섞여나오게된다.

건강한 사람의 공복혈당은 대체로 일정해서 혈액 1백cc속에 0.06에서 0.11g(60~1백10mg/1dl)을유지한다. 그러나 당뇨병이 되면 이 수치가 1백40mg을 넘어서 흔히 2백~3백mg이상이 된다. 이렇게되면 진성당뇨병으로 진단받게 되는데 혈당치가 1백40~2백mg이 넘어서면 오줌에서 당이 검출된다.

이같은 당뇨증세가 심해지면 당의 대사(代謝)는 말할것없고 단백질과 지방의 대사마저 나빠져 여러가지 합병증을 나타내게된다.

당뇨병이 있을때 나타날수있는 합병증으로는 고혈압, 심근경색, 동맥경화, 중풍, 임포, 팔다리의 신경통, 망막증(網膜症)에 의한 시력장애, 만성신장염같은 신장장애등이 있다. 또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 여러가지 감염증에 걸리기 쉽다. …몸에 부스럼이 잘나고숨어있던 결핵이 활성화, 썽을 일으키게된다.

당뇨병은 유전적인 소인에 후천적 요인이 겹쳐질때 나타나게 된다. 후천적인 요인으로는 비만, 임신, 정신과육체적인 스트레스, 감염등이 꼽힌다. 이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비만. 따라서 집안에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서 살이 지나치게찌면 당뇨병에걸릴 위험성은 그만큼높아진다.

당뇨병이라고 하면 으레 물을많이 마시면서(多飮) 많이먹고(多食) 소변을 많이보는(多尿) 3다(多)를 생각한다.

그러나 당뇨병은 아주초기에는 증상이 거의없는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환자가 어떤증상을 느낄때쯤이면 증세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있는경우가 많다.

당뇨병이 어느정도 진행되면 많은 사람에서 우선 갈증을 호소한다. 그러면서 당뇨병특유의 3다현상이 나타난다. 실제로 임상면에서 증상을 나타내는환자의 73%에서 다뇨, 67%가 다음, 60%에서 다식을 보인다. 그리고 이들증세가 심해지면 피로와권태, 체중감소, 성기능감퇴, 가려움증, 시력장애, 아랫다리가 저려오는 신경증상등이 나타난다.

당뇨병은 당이 소변에많이 섞여나온다는 그자체만으로는 큰문제가되지는 않는다. 당뇨병이 가져다주는 합병증이 큰문제가 된다. 따라서 당뇨병은 초기에 빨리 발견해서 합병증이 나타나지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단 합병증이 나타나면 돌이킬수없게된다.

당뇨병 치료엔 원칙이 있다. 당뇨병이 있으면 우선 식사와 운동요법을 해야한다. 식사요법은 각사람에 필요한 양만큼의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일이다. 당질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은 각각 50%, 20%, 30%로 한다. 지방은 식물성이 좋다.

쌀밥과 빵같은 곡류의 섭취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운동은 체중이 늘지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한 힘든 운동을 해도 무방하나 노인의 경우엔 걷기운동이 알맞다.

식사와 운동요법 만으로 혈당을 조절할수 없으면 혈당강하제를 투여해야한다. 그래도 조절이 안되면 인슐린을 투여하게된다. 약물과 인슐린요법에 들어가도 식사와 운동요법을 꾸준히 해야할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과체중은 당뇨병등 성인병을 불러들이는 요인이된다. 식사와 운동요법을해서 표준체중을 유지하도록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金光培 畵 <196>

양달 ㉛

『만일 지금이라도 인재씨가 그애가 얼마나 좋은 애라는 것만 알아준다면 그애가 입은 상처쯤 아무것도 아닐거예요. 그애가 인재씨를 얼마나 좋아하고있다는건 눈에 보이는듯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어』

『안늦었다니까요』

『그 여자가 얼마나 좋은 여자란걸, 너 같은 여자를 줘도 안바꿀만큼 좋은 여자란걸 깨닫는덴 그렇게 오래 안걸렸어. 우리 사이를 알해 불인네 입에 침도 안말랐을 때 난 이미 그걸 깨달았건만도 늦었어』

인재는 어제 미워하는 빛도 침통해하는 빛도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늦었다니 오죽이가 죽기라도 했단말인가요?』

수지가 눈을 부릅뜨고 겁에 질린 소리를 냈다.

『아니, 집을 나간 뒤였어』

인재가 쓸쓸하게 말했다.

『집을 나가요? 그앤 어떤 집에 살고 있었는데요?』

『아주 좋은 집이었어. 마음이 놓이고 또 반려성도 있는, 그런 보통사람들의 집이더군. 그애를 입적까지 시켜주고 친 딸처럼 길렀다는 걸 의심할 여지없이 좋은 사람들이었어』

『그럼 그애가 그 집을 나간 건 우리와는 상관 없는 일일거예요. 상관이 있을까닭이 없잖아요』

『아니, 상관이 있었어. 그 집에서 시집을보내려고 사주까지 받아놓은 날, 그여자는 나를 찾아왔다가 그런 봉변을 당한거야. 그날 그여자태도가 암만해도 이상했었어. 꼭 무슨 중대한 말을 할듯할듯한걸 알면서도 나는 그걸 교묘하게 피했었지. 난 그여자가 귀찮았어. 뭐 저런 바보같은게 집에가 다있나 짜증스럽기도했지. 내마음은 일편단심 수지를 못잊고있었으니까. 그 여자가 회사앞에지키고있을때마다 생각했었지. 그게 수지라면 얼마나 좋을까하고말야. 난 그여자를 한번도 그여자나름으로 봐준적도 생각해준적도 없었어. 수지하고 비교해가며 수지가 모든면에서얼마나 잘났다는걸 증명하기 위해 그여자가필요했고 적적하고 비참할때 수지의 대역으로 그여자가 필요했을뿐이야』

『대역(代役)이라뇨?』

『그래 대역으로, 난그여자를 수지대신 범한 적도 있는걸. 그때의 그여자의 무방비상태를 생각하면 내가 나같지를 않아. 나야말로 악마의 짓같고 그 악마를 죽이고싶은생생한살의까지 느끼다니까. 그러나 다 그여자를 잃고나서의 일이야. 내가 수지의대역으로서가 아닌 한 여자에 눈 뜬 건 불행하게도 그 여자를 잃고난 후였어. 그 공허감과 패배감은 혼처를 박차고 다시 고아가된건 그여자밖엔 아무도 못할 어리석은짓이었으니깐』

『그걸 범했다구요? 우리 오죽이를 당신이?』

수지는 너무 낮게 부르짖어서 음색이 없는 이 가는 소리같기도 했고, 숨을 몰아쉬는 소리같기도 했다. 수지 또한 인재에게 살의에 가까운 증오를 느꼈다. 거기서 당했겠지. 그 더럽고 궁상스러운 하숙방에서 오죽이가 산산이 망가졌겠지. 가엾은 오죽이. 졸업식날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인재의 하숙방이 선연하게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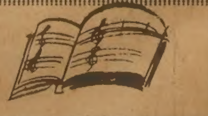
한국전집및 고전현대소설

◉한민족의 운명과 진로를 결정지어온 역사의 주역들—한국인물사(10권)
◉모든 여성에게 멋과 알뜰살림의 지혜를 심어주는 당신의 백과—현대여성 새생활백과(8권)
◉동양의 지혜, 처세의 경락서, 영원한 감동을 주는 불멸의 고전—박종화의 삼국지(6권)
◉피로 물들인 태평양! 인류사상 최대의 전쟁로망—태평양전쟁사
◉인간문화재 제38호 성대교수 황혜성의 가정요리(2권)의 박헬레나편 가정 꽃꽂이(2권)
◉소설로 쓴 한국 근대사라고 요약할 수 있는 박경리의 "토지"(6권)
◉유주현 역사소설군 대전집
◉동아방송편 광복20년(25권)
◉숲을 보되 나무를 논하지 말자의 옛날 옛날 한 옛날(이장우 저)
◉불멸의 작 천세욱편의 수호지
◉우리 어린이들의 벗 디즈니 유치원백과(12권)및 꽃동산(10권)
◉언제나 아껴지는 장삼직편의 대 한한사전
◉양방, 한방, 민간요법의 대 가정종합병원 외 수십종목 주문, 배달가능(단, 토론토지역)

범한서적북미주총판
1712 QUEEN ST. E. TORONTO
(416)690—2216 8am—10pm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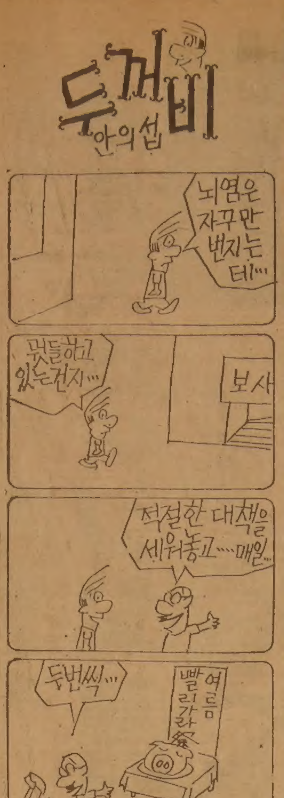
교회안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 정 준	주일오후 1 : 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 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 병 한	주일오전 7 : 30 영어설교 오후1 : 30 오후 2 : 00 금요저녁 9 : 00	3817 Lawrence Ave. 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 성 관	주일오후 2 : 00 유년중고장년모임 : 3시 20분	662 Pape Ave. Tor	266-4918
대한교회	조 남 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 필 주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 8 : 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 순 관	주일대예배11 : 30 수요예배오후 7 : 30 영어예배 오전11 : 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 주 성	주일새벽 6 : 30 주일 낮 12 : 00 주일오후 2 : 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 용 규	주일오전11 : 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1 : 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 용 진 적 춘 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 세 주	주일오후 1 : 30 토요기도 밤7시 성경공부 2 : 40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 상 봉	수요저녁 7 : 00 주일오후 1 : 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 경 진	주일오후 1 : 30 수요오후 7 : 3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 승 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 : 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강 제 철	주일오후 1 : 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 준 하 김 옥 희	주일영어 1 : 00 주일성경 1 : 00 주일예배 2 : 00 수요예배 8 : 0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498-7960 752-9860
대한수도원	조 권 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 요 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853
성산교회	계 화 삼	주일예배 11 : 00 12 : 30 수요오후 7 : 30 토요일오후7시30분	1239 Jane St. & 1384 Weston Rd.	248-4130 233-2266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 이 식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 태 진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 재 광	주일오후 1 : 30 수요저녁 7 : 30 금요저녁10 : 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 세 택	주일오전11 : 00 금요오후 8 : 00 주일오후 4 : 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 : 0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 웅 순	주일오전11 : 00 금요예배 7 : 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 웅 출	주일오전11 : 00 금요오후 7 : 30 주일오후 1 : 00 (영어예배)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755-9766 636-1724
제7일안식일	박 형 종	금요오후 7 : 30 토요오전 9 : 30 11 : 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 관 일	주일오후 1 : 00 성경공부 2 : 20 금요오후 9 : 00	502 Bathurst	961-8361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 종 옥	주일오후 1 : 00 토요오후 5 : 30	439 Dundas St. E.	863-0415
침례교회	홍 신 웅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 경 남	주일오후 2 : 00 주일오후 4 : 30 수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446-1211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 : 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 상 대	주일오후 1 : 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 : 00 (대예배)	300 Queen's Dr. 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 희 민	주일오전11 : 00, 수요오후 7 : 30 T. V. 예배 8 : 30~9 : 00A. 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 낙 중	성경공부 2 : 30 예배 3 : 00 주일학교 3 : 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메시아한인교회	조 창 환	주일오후 1 : 30 영어예배 12 : 30 새벽기도 6 : 00 (오전)토, 수요예배오후 8	1580 McCowan Rd.	298-1876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前·後期 二重합격도 50여명

大學부정入學 「善意」가린뒤 取消조치

文敎部 "大學·高校관계자 默認여부 調査문책 / 억울한 落傍生 파악어려워 救濟봉능"

8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전기대학 또는 후기대학간에서 2중합격한 학생이 57명으로 밝혀졌으며 이중 전·후기대학간의 2중합격자도 50여명인것으로 밝혀져 부정입학자는 모두 1백30여명으로 늘어났다.

문교부는 21일 이에따라 이미 밝혀진▲섭적변조자 22명▲전기간 2중합격자49명, 후기간 2중합격자8명에 대한 취소조치와 함께 관련대학 인사관리자의 묵인여부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번에 새로 밝혀진 전·후기간의 2중합격자에 대한 합격경위도 조사, 선의의 피해자를 가려낸뒤 나머지에 대해서는 합격취소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이들 전·후기간의 2중합격자는 전기대에 낙방, 후기대에 지원했으나 전기대에 미등록자가 생겼거나 모집인원이 채워지지않아 추가합격통보를 받아 선의로 2중합격된 자와▲전기대에 합격한 사실을 알고도 후기대에 지원 악의로 2중합격된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문교부는 또 전기에 합격한뒤 자의로 후기대에 합격했을경우 출신고교에서 지원서를 써줄수없는데도 어떤방법으로 지원했는지를 조사키로했는데 해당고등학교의 묵인사실이 밝혀질경우 학교장과 담당교사도 문책할 방침이다.

문교부의 한 관계자는 『부정합격자가 1백30여명으로 늘어났으나 이중 20여명이 이미 자진해서 등록을 포기했으며 이들 부정합격자들때문에 결국 억울하게 낙방한 피해 수험생이 생기게 됐으나 정확하게 피해자들을 가려내는것이 거의 불가능해 구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교부는 이미 2중 합격자 57명이 발생한 해당대학 총·학장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문교부는 전기간 또는 후기간의 2중합격자는 해당대학중 어느 한쪽이 지원자에 대한 면접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물에빠진 동생 구하려다 두곳서 男妹등 6명숨져

【麗水·錦城】 바다로 홍합을 잡으러 나갔던 3남매와 호수가에서 책을 보고 놀던 3자매가 물에빠져 모두 숨졌다.

20일하오 3시30분께 전남 麗川郡三日邑猫島里 창촌부락 속칭 섬바위앞 해상에서 이마을 李日俊씨 (48) 의 2녀 李禮양 (12·묘도국교5년) 과 2남 李植군 (9·동교3년) 3녀 流子양 (10·동교3년)등 3남매가 익사했다.

이들은 이날 마을앞에있는 바다로 홍합을잡으러 나갔다가 流子양이 혼자 바다물에서 수영을 하던중 수영미숙으로 허우적거리는것을 보고 李禮양과 李植군이 동생을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함께변을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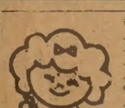
또 이날낮 12시30분께 전남錦城市가야동앞 영산호에서 이동네 나금만씨 (46) 의 장녀 혜영 (17) 2녀 미영 (14) 3녀 난희양 (9) 등 3자매가 깊이 4m의 물에 빠져 숨졌다.

이들 3자매는 이날 집에서 2백m 떨어진 영산호옆 바위위에서 책을 보고 있던중 막내동생 난희양이 2m아래 물속에 빠져 허우적 거리자 혜영·미영양이 구하려고 차례로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함께 변을 당했다. 【聯】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야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23일 民防衛훈련때 야간燈火관제 실시

내무부는 8월 민방위의날 훈련을 23일 야간등화관제훈련으로 불시에 실시한다.


533-2361

한시 택시값 暴騰 光州 최고 3천만원

【光州】 光州지방의 한시택시값이 최고3천만원까지 올랐다.

21일 전남光州시내 택시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만해도 1천7백∼2천만원에 거래되던 한시택시값이 최근들어 3백∼5백만원씩 올라 차령 5개월미만인 포니2 멥시등이 2천5백만원선에, 차령 1∼2년짜리는 2천2백여만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차령 [illegible] 천만원의 레코드로열은 [illegible] 원까지 호가하고 있다는것.

한시택시값이 이같이 치솟고있는것은 정부유류절약시책으로 지난6월말부터 택시연료가 휘발유에서 LPG로 대체되면서 택시들의 하루연료값 (4백㎞운행기준) 이 종전3만원대에서 1만5천원선으로 줄어든데다 6·28및 7·3조치이후 일부사채업자및 은행예금주들이 비교적 수익성이 높은 택시투자에 몰려들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聯】

돈건네준 홍콩人등 둘手配

2억여원 外貨 密搬出기도사건

미화 8만달러와 일화 5천8백만엔등 한화 약2억3천만원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하려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江西경찰서는 21일 돈을 갖고 나가려던 홍콩인 賴尙씨에게 돈을 건네준 홍콩인 候崇良씨 (51) 와 뉴국제호텔종업원 林모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적발된 미화중 여행자수표 5백달러짜리 42장은 [illegible] 3洞) 가 張모씨 (24)등 8명의 여권을 사용, 제일은행 중앙지점에서 환전해간 사실을 밝혀내고 [illegible]씨도 함께 수배했다.

한편 賴씨는 경찰에서 홍콩인 候崇文씨 (51·사업) 로부터 수배중인 候崇良씨와 林모씨등과 접촉하여 돈을받아 오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候崇文씨를 두목으로한 국제밀수조직의 하나로 候씨는 환전책, 候崇良씨는 판매책, 賴씨는 운반책일것으로보고 사건전모와 배후를 밝혀내기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未成年에 윤락행위 화대가로챈 넷拘束

【光州】 전남도경 수사과는 21일 미성년 윤락여성 20여명을 고용, 윤락행위를 시켜오면서 이들이 받아온 화대중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폭력등 전과7범 李泰秀씨 (33·光州市東區錦南路5街37의8) 와 李씨의부인 吳陽씨 (39) 를 비롯 金正씨 (28·폭력전과7범·상동) 朴씨 (23·전과3범) 등 4명을 미성년자보호법 윤락행위방지법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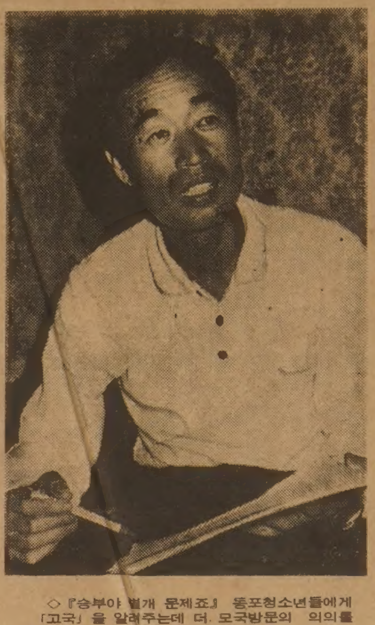
뜨거운 民族愛의 喊聲에 감격

鳳凰大旗야구참가 在日동포팀「철새감독」韓在愚씨

어린학생들에「궁지」심으려 生業도 포기… 15년간 몸바쳐

서베이 스토리

재일동포 학생야구단감독 韓在愚씨 (46·大阪府堺市田出井町1∼19) 는 한마리 철새와 같다. 해마다 8월이면 어김없이 서울운동장야구장에 모습을나타낸다. 벌써 15년째다. 그때마다 鳳凰大旗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의 뜨거운함성에 나래를 한껏 펴고 고국을 찾은 기쁨을 만끽했다. 그리고함성이 멎으면 내년을 기약하고 일본으로 훌쩍 되돌아간다. 韓감독이 「철새감독」생활을 시작한 것은 67년부터다. 당시 재일한국인야구협회장이던 故權寧씨의 부탁을 받고 학생야구단감독이 됐다. 그때는 학생야구단을 이끌고 귀국, 친선게임을 하려면 적어도 한달간은 생업을 포기해야 했다. 이때문에 누구도 감독직을 맡으려하지 않았다. 생업을 포기하더라도 어린학생들에게 조국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보람있을듯도해 이를 즉석에서 수락했다.


◇『승부야 별개 문제죠』 동포청소년들에게 「고국」을 알려주는데 더. 모국방문의 의의를 찾는다는「철새감독」韓在愚씨。

경남 固城郡 上里面이 고향인 韓감독은 일본에서 태어났다. 4살때 아버지를 잃고 편모슬하에서 자랐다. 이때문에 그는 가난과 민족차별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당했다.

스포츠로 울분을 풀기위해 국민학교4학년때부터 야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프로선수를 꿈꾸었고, 그 꿈은 西鐵라이온스에 입단함으로써 이뤄졌다. 그러나 스포츠세계에도 민족차별이 심했다. 투수로 등판할때마다 상대편벤치에서는『마늘먹고 왔느냐』고 야유가 터져나왔다.

檀회장으로부터 감독직을 부탁받았을때 선수생활하며 당했던 수모가 물론 생각났고, 동포소년선수들에게 이를 이겨낼수 있는 민족적 긍지를 심어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가졌던게 사실. 67년처음으로 학생야구단을 이끌고 왔을때 감독을 맡길 잘했다고 느꼈다.

고국은 참으로 좋았다. 가는곳마다 형식적인 친절이 아닌 「마음」으로 맞아주었다. 서울운동장 야구장의 시설은 일본에 비하면 초라했으나 신바람이 났다. 야유도 없었고 격려의 함성만이 있었다.

『그때에 비하면 한국도 젠 남부러울것이 없어요. 서울운동장 야구장도 많이커졌지만 정말 잠실야구장은 일본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읍니다. 프로야구팀도 생겼구요』 釜山商高와의 결전이 벌어진 잠실구장을 바라보는 눈길은 그윽하기만 하다.

"日、스포츠도「差別」… 울분 이젠 故國야구도 水準級"

「철새감독」에겐 항상 모국방문의 기쁨만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교포사회도 3세·4세가 등장함에 따라 팀구성이 어려워졌다. 해마다 철새처럼 서울운동장 야구장에 나타나면 다음해 팀구성작업을 걱정해야한다. 일본의 2백여개 야구명문고에 한국인 야구선수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편지를 띄운다. 반신우표를 동봉하지만 답장을 해주는 학교는 50여개 정도. 이중 한국인 선수가 있다는 답장은 10개교를 넘지못한다.

또 일본전국고교팀의 프로필도 구입, 밤새워연구한다. 이름중 한자에 植·煥·福字가든 이름을 가진 학생과 金本과 高山등의 성을 가진 학생에게 편지를 띄운다. 요즘엔 틀림없이 교포들이 많아 이마저 어려워졌다.

이같은 과정을거쳐 한국인 선수를 찾아냈다해도 부모의 반대를 물리쳐야한다. 어느때 학생야구단이 모국에서 경기한 모습을 담은 사진첩을 들고가 몇시간씩 설득하기도 한다. 팀이 구성되더라도 여권수속이란 산이 또하나 있다. 이러다보면 한해가 간다.

『고국을 다녀간 학생들이 일본에 귀화한 생각을 버리고, 설날이면 한복을 입고 찾아와 鳳凰의 함성을 떠올릴때면 더없는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때는 『금년엔 꼭우승하라』는 카드로 받았다고 전한다.

『고국의 야구수준도 그동안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초창기엔 재일교포 학생야구단의 승률이 높았으나 이젠 비슷하지 않읍니까』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편치않은 시기라지만 주무로 함께온 장남 俊幸군 (19·關西大포수) 에게 「고국」의 모처모를 소개하는 「철새감독」의 표정엔 생업인 운동구점 생각을 잊은듯 했다. 【朴珍列기자】

전국 航運·荷役근로자들에게도 10월부터 醫保혜택

보사부는 21일 전국항운·하역근로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주도록 하기위해 임의 1종 의료보험조합의 설립을 인가, 오는10월2일부터 요양급여를 실시토록했다.

근로자및 부양가족등 8만2천여명이 혜택을 받게될 이 의보조합은 전국 항운노조연맹과 한국 항만 하역협회가 공동 사용자가되며 보험료는 급여액의 3%로 피보험자가 1.5%, 항만하역협회 소속 각 회사가 1.5%씩을 부담키로 되어있다.

人夫 5명숨져

高速道 보수작업중 트럭 덮쳐

【原州】 20일하오 8시30분께 강원도橫城郡偶川面上大里 영동고속도로 新葛기점 1백6.4㎞ 상행선에서 부산7아7076호 4.5톤트럭 (운전사 李장혁·32·경남蔚山市太和洞22의13) 이 브레이크파열로 고속도로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10여명의 인부를 덮치는 바람에 한국건업소속 현장직원 李재화씨 (24·충남大原郡豊世面佳松里344) 등 5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로 李재화씨와 鄭덕영씨 (35·강원도平昌郡道岩面楡川1里) 및 신원을 알수없는 1명등 3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사고즉시 原州기독병원으로 옮겨가던중 [illegible]씨 (25·강원도平昌郡道岩面楡川1里) 와 신원을 알수없는 30대가량의 남자등 2명이 21일새벽 3시 숨졌으며 입원중인 3명도 생명이 위독하다.

경상자 2명은 상처가 가벼워 약간의 치료를 받은후 귀가했다.

이날 사고는 트럭운전사 李씨가 大關嶺에서 고냉지 무우를싣고 서울로가던중 사고지점인 영동고속도로 내리막길에서 [illegible] 브레이크가 파열돼 때마침 파손된 고속도로공사를 마치고 귀가준비를하던인부들을 덮쳐 일어났다. 【聯】

鑛夫4명 生死불명 太白탄광 매몰사고

【太白】 속보=太白市禾田洞 太白탄광매몰광부구조반은사고발생 하루가 지난 21일상오7시현재까지 매몰된 광부들의 생사를 확인하지못하고 있다.

20명으로 편성된 구조반은 사고현장에서 터져나온 지하수를 퍼내기위해 양수기 1백마력짜리 2대와 75마력짜리 1대를 동원, 물을 퍼내고있으나 현장이 죽탄으로 뒤범벅이 된데다 2백m가량의 갱도가 침수된 상태여서 구조작업이 늦어지고있다.

광업소측은 4명의 광부들이 사고현장으로부터 1백m가량 떨어진곳에 위치해있는 다른 갱도로 대피했을것으로 보고 2∼3분간격으로 파이프를통해 계속 공기를 주입시키고 있는데 이들의 생사확인은 21일하오 늦게나 밝혀질것같다. 【聯】

野球場 난동 拘束 서울선 처음

빈주스깡통 던져 觀衆부상

서울江東경찰서는 21일 金洪英씨 (34·공원·경기富川市素砂洞56) 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金씨는 지난19일 하오 4시30분께 서울蠶室종합운동장 야구장 3루쪽 관람석에서 봉황기쟁탈고교야구대회 준결승전인 光州一高대 재일동포의 게임을 관람하다 光州一高 응원팀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지르자 시야가 가린다며 옆에있던 빈쥬스깡통을 1층관람석으로던져 鄭連鎬군 (11·경기始興郡儀旺面五金里) 에게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혔다는것.

金씨는 사회정화위원회가 지난18일 경기장질서확립을 위한종합대책을발표한후 서울에서는처음구속된 사람이다.

本社 靈泉보급소장 殉職

신문배달 독려하다 졸도

한국일보사 靈泉보급소 (서울西大門區) 소장 閔丙昌씨 (사진) 가 21일 새벽4시30분께 보급소사무실에서 신문배부작업을 독려하다가 과로로 졸도, 서울적십자병원으로옮겨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상오7시50분 순직했다. 향년40세.

유족은 미망인 朴貞愛여사와 3남. 장례는 23일상오11시 서울적십자병원 영안실에서, 장지는 경기金浦郡月串面郡下里先塋. 연락처 ④5506.

5行뉴스

◆폭풍으로 여객선 운항못해

【釜山】 21일 새벽 6시30분부터 남해 동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자 이날아침6시55분 부산발 麗水행 한려개발소속 엔젤7호와 7시30분 장흥포행 거제개발소속 코스모스호등 연안여객선 20척이 운항하지 못해 주말을맞은 1천여명의 피서객들이 발이묶였다. 【聯】

◆太白—三陟간 도로 두절

【太白】 21일새벽부터 太白지방에 집중호우가쏟아져 三陟郡道溪邑 속칭 소부치재에서 산사태가일어나 太白市桶里—三陟郡近德邑사이의 교통이 두절됐다. 【聯】

◆음주단속警官태우고도주

【釜山】 부산東部경찰서는21일 음주운행단속경찰관을 차에태운채 4㎞나 달아난 부산7다7804호트럭 운전사 박태권씨 (34·中區瀛州2洞169) 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聯】

◆어린이60여명집단피부병

【鐵原】 강원鐵原郡東松邑二吉里와 葛末邑 亭淵里 1백20가구 일대에 이름모를 피부병이 번져 국민학교어린이등 60여명이 집단으로 앓고있다. 【聯】

外道 로마서 觀光안내업 洪性在씨

博士 따러갔다「名가이드」로 急轉

洪性在씨 (44·사진) 의 꿈은 「대학교수」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러 로마에 갔다. 67년 8월의 일이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뒤 洪씨는 관광안내원이 돼 있었다. 洪씨의 꿈은 엄청난 차질을 빚은셈이다. 洪씨가 처음부터 외도를 하려던것은 아니다. 75년까지는 국립로마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이수 했다. 다만 쪼들리는 학비를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부지런히 했을 뿐이다.

洪씨가 「관광계」에 끌려 들어간것은 「돈맛」을 알게된 불혹때문이었다고 하자.

그가 서울손님들을 상대로 이따금 관광안내를 하게 된것은 공교롭게도 한국에 해외관광 붐이 불기시작한 70년대 후반기.

한손님을 치르다 보면 팔시 할수없는 다른 손님이 들르고… 그러다보니 주머니에 적지않은 달러도 쌓이게 되고 또 안내편리를 위해 벤츠 미니버스도 사게되었다. 안간힘을 쓰기도 했으나 책을 대하는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반면에 洪씨는 名가이드로서의 명성을 얻어가고 있었다. 볼만한 유적지만도 수천군데가 넘는다는 로마관광에서 로마史에 대한 그의 해박한 전공지식은 압권이었던것.

78년 洪씨는 아예 여행사를 설립하고 말았다. 로마상대의 알들여행을 안내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지난주 洪씨는 국내여행사와 업무협의차 귀국했다가 역사왜곡사건으로 술렁이는 고국의 분위기를 목격한다.

『日本상품이 세계를 휩쓸고있는것만 봐서는 안됩니다. 日本만화가들이 떼지어 유럽을 누비는걸 보았읍니다. 그뒤 이들이 그려내는 만화가 유럽의 구석구석까지 퍼지는것도 보았읍니다』

그는 日本人을 따라잡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견과 안목을 계속 넓혀가야하며 그러기위해 해외여행을 더많이 시키는 방향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각계각층의 한국여행자를 겪어봤읍니다.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답니다. 뭔가 한두가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追求力이 없었어요. 그러니 얻는것도 적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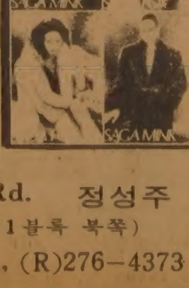
洪씨는 유럽을 오기전 서양사와 기독교관계서적을 한두권쯤은 읽고 오라고 충고한다. 그러면서 마구잡이 쇼핑은 이제 그만하라고 거듭당부한다. 【盧基昌기자】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등을 이윤 없이 판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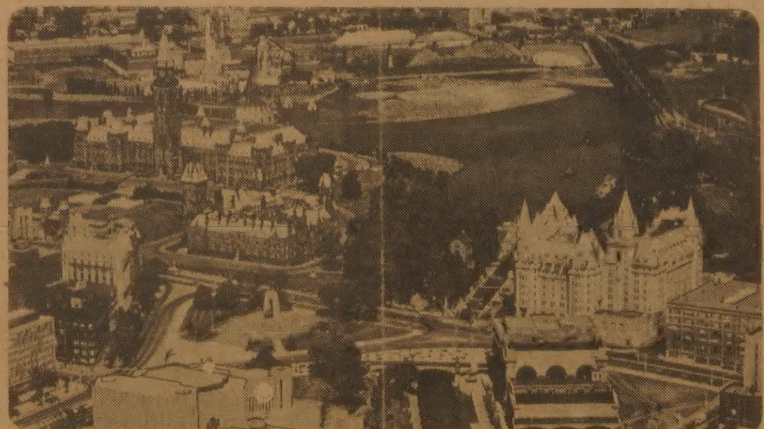
비 정상적 가격
40%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일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록 북쪽)
☎ : 241-8091, (R)276-4373

한인 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U.B.A. Trading Company Ltd.
300 Dwight Ave. Toron. ONT. M8V 2W7

ANNIE'S 미용실

확장이전개업스페샬

과거 Willowdale 지역에서 Downtown 쪽으로 업소를 확장이전해서 여러분을 모십니다.

〈특별봉사기간〉 9월10일까지
◎ 40% OFF

—남·녀 커트
—머리 염색
—귀걸이 구멍뚫기
—남·녀 파마
—매니큐 전문
—얼굴맛사지, 노화방지
—신부화장
—잔주름제거, 여드름 치료

※차편이 불편하신분을 위해. 차편 제공 가능.

※불란서 고급화장품 취급

812 QUEEN ST. E.
☎ : 463-9071 (퀸 × 브로드뷰)

Pender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SPECIAL
6주년 기념
SANYO
$595.00

분납 가능
교포 경영
김 성 수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 · 짬뽕 · 짜장면
해장국 · 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 - 0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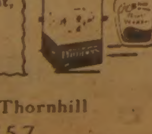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거구장
신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제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서울하우스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짬뽕 · 냉면
짜장면 · 잡탕밥 전문
615 BLOOR ST. W. ※일요일은 휴업
☎ : 532-0602 김 신우

Family Product Distributor
도매상과 값을 비교해 보십시요.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 배달($60이상일경우) 합니다.
취급품목
Paper towels, 화장지, Detergent, 각종 Soap, 세탁비누, Pampers, 종이봉지(Paper bag)



87 Green Lane, Unit 10 Thornhill
주문☎ : 889-9757

鳳凰, 群山港으로 날다

趙啓顯 群山商, 제3의 黃金期맞아

다채로운 變化球로 強打線 침묵시켜
在日동포, 유격수 공놓쳐 決勝點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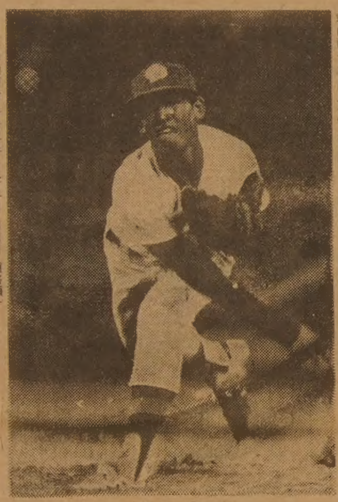
제12회 봉황대기고교야구

◇봉황向方에 5萬관중 視線집중 5만여 대관중이 잠실구장을 빈틈없이 메운 가운데 群山商高-在日同胞결승전이 펼쳐졌다. 양팀은 초반부터 점수를 주고받으며 팽팽한 게임을 벌였다.

群山商高가 제3의 황금기를 열었다. 趙啓顯, 張虎翼, 2년생 배터리를 주축으로 群山商高는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봉황고지에 올라섰으며 청룡기우승과 함께 금년시즌 2관왕의 위세를 떨쳤다. 72년 황금사자기에서 金奉淵 金準桓 金一權의 강타력으로 釜山高에 5-4로 역전승, 「역전의 명수」로 돌풍을 일으킨 群山商은 76년 金勇男 金城漢으로 대통령배를 석권, 제2의 황금기를 열었고 황금의 우완 趙啓顯으로 세번째 전성시대를 열어놓았다.

1-1의 타이에서 맞은 3회말 群山商의 공격. 대회 11호홈런의 주인공 3번 白仁浩가 연투에 지친 在日同胞에이스 梁視鐵의 제5구를 강타, 중전안타로 승리의 돌파구를 열었다. 白은 2루에 스틸, 후속보내기번트로 1死3루의 찬스를 마련했다. 행운의 사나이 5번趙啓顯이 때린땅볼이 在日同胞수비주축인 유격수河信之의 글러브속에서 빠져나갔다. 3루에서 대시, 홈을밟은 白仁浩는 환희에찬 미소를지었다. 群山商의 첫우승을 결정지은 결승점이었다.

장거리원정에 在日同胞는 너무지쳤다. 1회말 첫공격에서 20타수3안타의 부진으로 고심하던 群山商선두 高長亮이 在日同胞 에이스 梁視鐵의제2구를 노려 회심의 좌월2루타를날렸다. 2번 韓京洙의 보내기번트를 梁視鐵이 잡으려다 1루에 악송구, 群山商에 선제점을 내주었다. 일발장타력을 가진 在日同胞는 3회초 선두 1번 張基浩의 내야안타와 4번梁視鐵의 우중월 3루타로 1점을 만회했으나 5회이후 趙啓顯의 다채로운 변화구에 휘말려 침묵을지켰다. 群山商은 8회말 지친 梁視鐵로부터 선두 3번白仁浩가 좌전안타, 4번 吳錫煥이 데드볼, 2死후 6번 張虎翼이 중월 3루타, 7번 吳仁植이 좌월2루타를 연발시켜 4-1로 승리를 확정지었다.



◇群山商을 우승으로 이끈 두뇌 피칭의 趙啓顯.

◇決勝개인성적

群商	타수	득점	안타	타점
(三)高長亮	2	1	1	0
(二)韓京洙	2	0	0	0
(遊)白仁浩	2	1	2	0
(一)吳錫煥	2	1	0	0
(右)投趙啓顯	3	0	0	0
(捕)張虎翼	4	1	1	1
(中)吳仁植	4	0	2	1
(投)右李東錫	4	0	0	0
(左)李承雨	2	0	0	0
犧三四盜殘失 416171	25	4	6	2

在日同胞	타수	득점	안타	타점
(中)張基浩	4	1	1	0
(三)裵俊漢	3	0	0	0
(遊)河信之	4	0	1	0
(投)梁視鐵	4	0	1	1
(一)洪壽榮	3	0	0	0
(二)林升俊	3	0	1	0
(左)金謹	3	0	0	0
(右)金義治	3	0	1	0
(浦)權仁志	3	0	0	0
犧三四盜殘失 161042	30	1	5	1

◇양팀 投手성적

	回數	打者	安打	三振	四死	失點	自責
梁視鐵	8	35	6	1	6	4	2
李東錫	⅔	3	1	0	0	0	0
趙啓顯	⅓	29	4	6	1	1	1

3회同點땐 不安

白基成감독=생각보다 게임이 안풀렸다. 경기전에 국내팀과 싸운다는 기분으로 경기에 임하라고 당부했지만 동포선수들이라는데 위축이 됐다. 초반에 실력을 완전히 발휘하지못해 먼저 점수를 내겠다는 욕심으로 3회말 白仁浩에 도루를 지시했는데 이것이 성공, 결승점이 됐다. 3회초 동포팀에 1점을주고 투수 趙啓顯이 흔들릴때 불안했다. 상대가 주로 밀어치는 타자들이어서 슬라이더와 슈트를 주로 던졌다. 동포선수들은 趙의 약은 피칭에 상체가 자꾸 따라 나왔다. 유격수 白仁浩의 멋진 수비가 승리의 밑바탕이 됐다.

◇白基成감독

◇개 인 상

▲최우수선수=吳錫煥 (군상1루수)
▲최우수투수=趙啓顯 (군상투수)
▲우수 투수=①梁視鐵 (재일) ②金宗奭 (부산) ③文熙洙 (광주일)
▲감 투 상=林升俊 (재일2루수)
▲수 훈 상=張虎翼 (군상포수)
▲타 격 상=①玄俉琇 (부산좌익수) 20타수12안타 (0·600) ②李善泰 (장충투수) 13타수7안타 (0·538) ③尹斗寬 (부산우익수) 15타수7안타 (0·467)
▲타 점 상=①黃允泰 (부산중견수) 8 ②張虎翼 (군상2루수) 7 ③玄俉琇 6
▲도 루 상=曺良根 (북일유격수) 10
▲미 기 상=張基浩 (재일중견수)
▲감 독 상=白基成 (군상감독) 韓在愚 (재일감독)
▲지 도 상=洪慶燮 (군산상부장) 陳埼淵 (재일단장)

◇최종일 전적

◇결승전

	1	2	3	4	5	6	7	8	9	계
재일동포	0	0	1	0	0	0	0	0	0	1
군산상고	1	0	1	0	0	0	0	2	X	4

▲3·4위전

	1	2	3	4	5	6	7	8	9	계
광주일고	0	0	0	0	0	0	0	0	0	0
부산고	0	1	0	0	2	0	0	0	X	3

▲광주일투수=朴俊泰·文熙洙(3회) 포수=金木政·朴俊泰(3회) 劉炳奇(8회) ▲부산투수=金昌基(1·4회) 金宗奭(3·5회) 李英昊(9회) 포수=田龍雨 ▲안타=광주일 3-8 부산고.

釜山高 3위차지
3·4位戰 光州一高를 3-0完破

결승문턱에서 주저앉은 양팀은 오늘의 3위보다는 내일의 우승을 노리겠다는 자세였다. 釜山은 연투로 피로한 좌완에이스 金宗奭을 1루에대기시켜 놓은채 1년생 우완 金昌基를 선발로 기용, 光州一高도 1년생 朴俊泰를 선발로 마운드에 내세웠다.

선공에 나선 光州一은 1회초 2死후 3번 朴哲浩가 우전안타로 金昌基를 강타하며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선제점을 올린쪽은 釜山. 2회말 2死후 6번 田龍雨는 우전안타를, 7번 柳東孝는 적시 우월 2루타를 날려 연속 2안타로 선제점을 올렸다.

釜山은 5회말 선두 8번 金憲洙가 중전안타를 때리고 보내기번트로 2進한후 재치있는 1년생 1번타자 玄俉琇가 절묘한 기습번트안타를 성공시켜 1死1·3루의 찬스를 만들었다. 2번 黃鍾萬이 스퀴즈번트로, 3번 黃允泰가 좌전적시타로 각각 타점을 올려 釜山은 3-0의 승세를 굳혔다. 이후 釜山은 위기때마다 1루에 대기하던 에이스 金宗奭으로 구원, 光州一高 반격을 9회동안 산발3안타로 완봉했다.

延長21회 기록
美野球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다저스와 시카고·컵스가 21회까지 연장전을 벌여 금년시즌 美프로야구시즌 메이저리그 최장게임기록을 세웠다.

양팀은 지난18일 경기서 17회 연장을 벌였으나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채 경기를 日沒로 일시중단, 다음날 21회까지 접전을 벌인끝에 다저스가 2-1로 승리했다.

경기중 양팀의 감독과 코치 선수 2명이 퇴장당했으며 안타가 33개나 터졌으면서도 득점은 3점에 그치는 이색기록도 세웠다.

총6시간10분간 경기가 계속되는 동안 모두 45명의 선수가 출장했는데 다저스는 등록선수 25명이 모두 모습을 보였다.

잔루는 다저스가 21, 컵스가 15.

21회 연장기록은 지난 4월13일 6시간 6분동안 20회까지 경기를 벌였던 캘리포니아 에인젤스와 시애틀·마리너스의 대결. 【시카고AP聯合=特】

"살기좋은나라"…한국47位
펜실베니아大 조사, 1位 덴마크

海外토픽

【터론토20日=聯合】 한국은 북괴의 남침위협과 천연자원부족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47번째로 살기좋은나라로 꼽히고있는것으로 美펜실베이니아大사회과학연구소의 리처드·이스티스소장의 연구결과에서 20일 밝혀졌다.

이스티스소장이 세계 1백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반적인 생활의 질적 수준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싱가포르와 함께 47번째로 살기좋은 나라인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살기좋은 나라는 덴마크가 차지했다고 터론토·스타紙가 20일 보도했다.

또 미국은 비교적 낮은 41위, 이디오피아는 최하위를 차지했으나 北傀와중공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연구결과는 지난67~69년, 77~79년동안 각국에서 일어난 실제적변화와 상대적인 경제성장률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이스티스소장은 자료수집을 위해 세계각국을 직접 방문했으며 세계은행·유엔등세계기구에서도 자료를 구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니코틴含有된 껌
★담배중독자 禁煙에 도움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는껌은 담배중독자들의 흡연습관을 없애는데 큰 도움을 줄수있는 것으로 미국의 한 의학연구 결과 밝혀졌다.

캐나다 영국 스웨덴등지에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니코틴함유 껌은 씹을경우 부작용도 거의 없을 뿐아니라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마저 감퇴시켜 줄수 있다는것.

이 연구조사에 따르면 4mg의 니코틴이 함유된 껌을 1시간동안 씹어야 담배 1대 피우는것과 같은 양의 니코틴이 혈관으로 흡입된다고 하며 이껌을 씹을 경우 니코틴이 체내에 조금씩 흡입되어 혈관속의 니코틴양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흡연상습자들의 흡연욕구를 만족시켜 줄수있다는 것이다.

거짓信號 열차세워
★복면强盜 우편행낭털어

2인조 복면무장강도가 거짓 신호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마드리드간 야간우편열차를 세우고 보석이 들어있는 3개의 행낭을포함, 10개의 우편행낭을 챙겨 도망쳤다. 【바르셀로나=EFE】

이께다高 優勝
日甲子園 야구

【東京=宋孝彬특파원】 20일 고시엔(甲子園)구장서 폐막된 일본고교야구 최대의 잔치인 여름고시엔 대회에서 도꾸시마현(德島縣) 대표인 이께다(池田)고교가 히로시마(廣島)상고를 12-2로 대파하고 64년대회 사상 첫 우승을 거두었다. 이께다고교 에이스투수겸 강타자인 하다야마·히로시(畠山準)는 6회초 2점홈런을 날리는 한편 히로시마상고 공격을 4안타로막아 승리에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이께다고교는 18개의 안타를기록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이 주최하는 이번 전국고교야구대회에는 예선대회를 포함 전3천4백66개교가 참가했다.

한편 일본고교야구연맹은 시상식이 끝난후 이달27일부터 열리는 韓·고교선발야구대회에 출전할 올스타17명을 선발했다.

맛사지

(near airport)
MISSISSAUGA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는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디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5-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 성 희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 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저녁6시 이후 전화바람)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K.D.K.Construction Co.
Met. Lic.B4298, Inside & Out
Renovations, Home Repairs,
Carpentry, Dry-Wall
Plastering, Ceiling
Concrete Work, Plumbing
Painting, Wall Papering
Tiles Etc.
921-8163
Mr. Reg. Kimura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복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출러
전화 : 630-6602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이 영두·이전화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 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천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준동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가게 학생 Helper 구함.
매일 학교수업후 2시간~3시간씩 Help 요!
Kipling & Albion 지역. 전화 : 741-4692

일본식당 웨이트리스 키친헬퍼구함. 특히 한국인 무경험자 환영. 9월말 개업. Finch Subway 5분거리.
전화 : 826-7676(R), 222-1621(B). Mr. 모리

여자 캐쉬어 토·일요일하실분 구함.
오전12시~저녁8시까지. 다운타운.
전화 : 921-0624

유경험자(남자) Helper구함. (Full & Part time 또는 주말)
스카브로지역 거주하시는 분 환영.
대우 우대함. 전화 : 691-8602

풀타임 경험있고 영어할 수 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937 Bay St. 이나, 462 Kingston Rd.로 직접내방바람.

일본식당 남자 키친헬퍼 구함.
전화 : 960-9035

유경험자 여자 Cashier 구함.
Western Area. 내방바람.
261 Scarllet Road at Eglinton Ave. W.

일본음식점에서 일할 키친헬퍼(접시닦는것 포함) 구함.
9월7일부터 일시작, 오후2시30분이후 전화요망. 전화 : 421-6016

Milk Store에서 일하실 여자 Cashier구함(유경험자)
오전 8시-오후 4시(Downtown지역) Full Time
전화 : 624-5817 (Mrs. 차)

Part Time Sales people for painting & other Art objects.
전화 : 920-1420(저녁시간에 영어로 문의바람)

치과에서 일하실여자 Receptionist 구함.
경험있으신 분이면 더욱 환영하며 영어를 자유로 구사하실수 있는 분이어야 함.
전화 : 233-9454 or 233-4888
Dr. Mark Koch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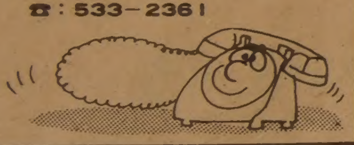
"봉학농장" 본농장에서는 토론토는 물론 타지방(캘거리, 에드몬톤, 몬트리얼) 교포들에 바쁜 생활에 실질적인 편의와 수요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새 건물을 신설하여 식품가공 업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고유한 맛인 각종김치, 깻잎, 고추잎장, 다꾸왕, 짠지무등을 생산하는데 경험과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농장에서 장기 기거하며 수고하실수 있는 여자 약간명 구합니다.
전화 : 1-775-6256 Mr. 강

Mac's Milk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함.(Full Time)
South of Eglinton & Kennedy
전화 : 261-4082 (Mrs. Lee)

제일식품에서 일하실 아주머니 구함.
(Full Time) 전화 : 532-1054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프로페셔날 바이올리니스트의 개인지도를 받으실분 연락주십시요. (all level)
Call Mr. Wong 233-4200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변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저희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광고문의, 신청 : 533-2361~4

매매

House Sale or Rent (Special Discount)
위치 : Victoria Park & Van Horne
Det. Brick, 3 Bed Rm. Bung. - Cent. Air Con.
2 Car Gar. with Elect. gar. Door Openner
Mortgage: 1st. $66,000(13%), 2nd; V.T.B.
Sale: $149,000. Rent: $850-$700. 전화 : 494-9679

소매상점을 짓기에 대단히 좋은 지역임(New Market)
500 sq.ft까지 건물을 지을수 있는 대지
135 ft.(전면) by 140 ft. 전화 : 889-2075

상점 급매 (양도)
비지네스 전부재고품(꽃, 채소, 과일, 잡화류)및 시설일체. 자동차 양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나, 유경험자로도 책임지고 트레이닝 해드림.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으시라.
아스킹 : $10,000
전 화 : 769-5584 (서선생)

615 Bloor St. W 에 위치한 성업중인 식당 매매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새로운 Mall속에 Hamberger & Coffee
20년의 장기 Lease에 Rent : $1,060.
현주며상 : $2,500. 앞으로 6개월내에 $5,000 보장.
주6일 영업(Short Hour). 다운페이 : $50,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베커프렌차이스 매매
연락처 : 691-9414 (월-금 오후5시이후)

여자분 혼자서 운영가능한 Mall안에 있는 Variety Store 가정형편상 아주 싼 값에 드립니다. (내방 바람)
1250 South Service Rd. Miss. Ont. (Health Food & Cake)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개인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전화 : 656-7753 Mr. 최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5년리스 + 5년옵숀 주매상: $3,500 아스킹: 2만5천불 (이층 살림집 있음) 전화 : 463-8674

Private Sale. 파킹장 구비한 상업지역의 Builing 매매.
모든 Business에도 적합한 좋은 조건의 위치. 크기 : 8 Rooms.
아스킹 : $219,000 전화 : 921-9847, 923-2872 (William)

Private Sale (Tailoring Store & Building)
Good Location & Good Opportunity
Phone : 533-3888 (Antonio)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집렌트

셋방 있음(1 Bed Rm+Kitchen) $200/M.
9월1일 입주가능. 하이드로 포함. 653A Bloor St. W.
전화 : 533-0168 (1:00p.m.-10:00p.m.) Mr. Kim

아파트렌트

아파트 "Sublet" (다운타운 지역) 9월1일 입주가능.
위치 : Queen St. & Roncesvalles 1 Bed Rm/$406
(하이드로 포함) 전화 : 536-4701 Mrs. 리

2 베드룸 아파트 렌트 $380
(리스 한달반 남았음) 105 Westlodge Ave.
(Queen+landsdowne) 전화 : 531-0960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비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E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ANNIE'S BEAUTY SALON
◉남·녀 파마, 컷트, 화장전문, 여드름, 주름살 치료, 메니큐전문, 머리염색, 귀걸이 구멍뚫기.
◉차편제공 가능, 불란서고급 화장품 취급.
812 Queen St. E (퀸×브로드·뷰) 463-9071 Mrs.Lee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8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백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 30분까지

선물센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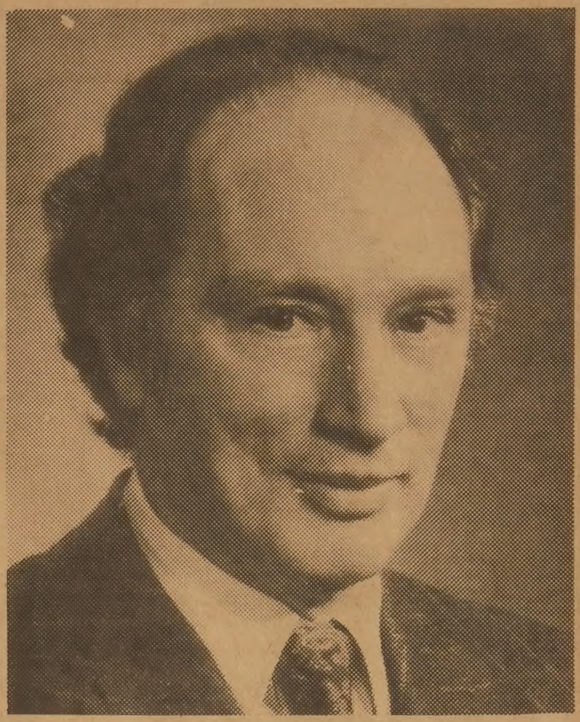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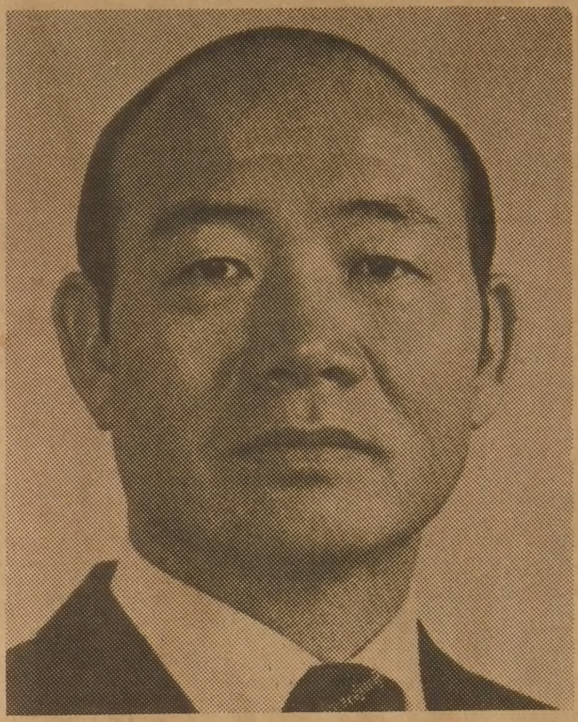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알리지 않는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일보 안내광고＊ 한국안내광고에서

환 영





전두환대통령각하내외분의 캐나다 방문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1982년 8월

LUCKY DRAPERY
대표 최원보

커튼을 원하십니까? 다양한 품목, 다양한 기술, 저렴한 가격, 신속정확을 기하는 LUCKY DRAP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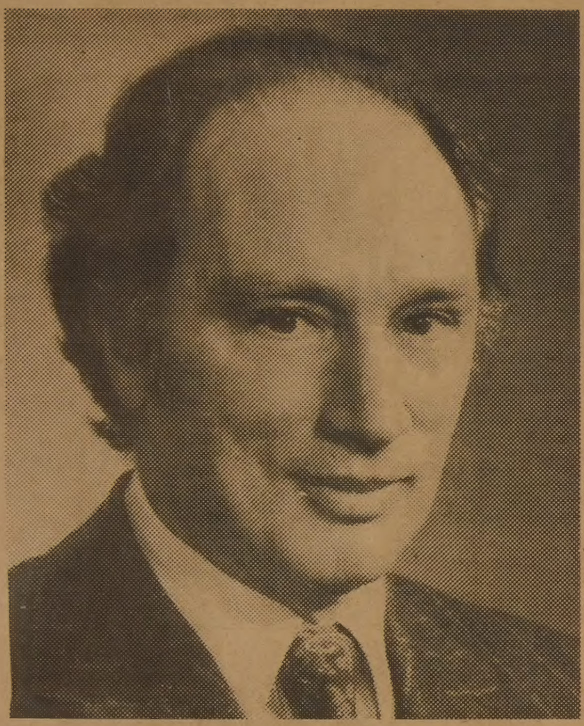
4141 DIXIE RD. ROCKWOOD MALL
(딕시×버남돌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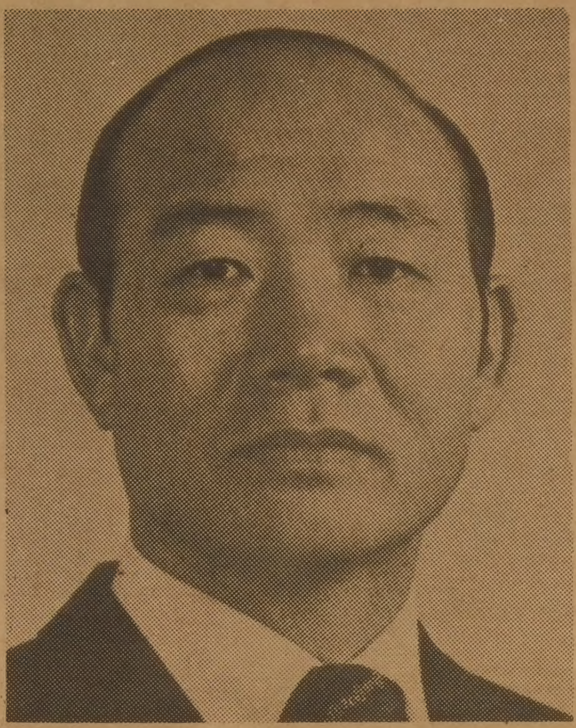
625—0698

선린상고동문회일동

축

환 영





금번 전두환대통령 각하 내외분의 캐나다 방문및 한·카 정상회담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대통령 각하 내외분의 캐나다 방문으로 양국간의 교역이 더욱 증대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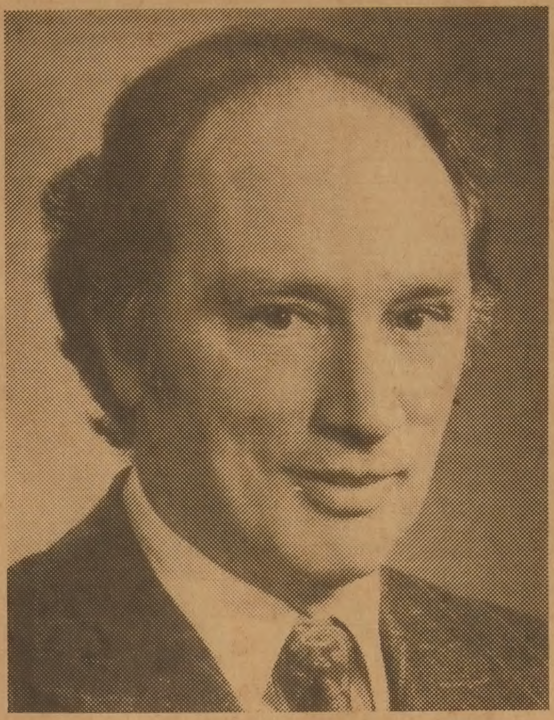
1982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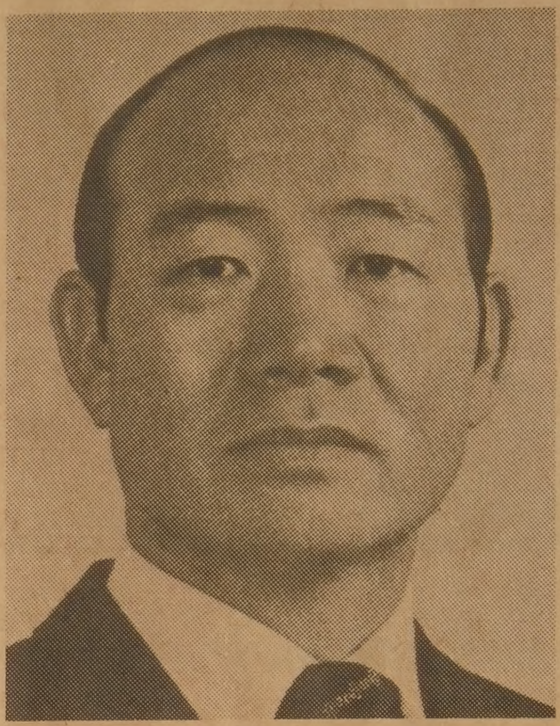
본사 : 금호실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94 인송삘딩내

지사 : 금호 캐나다주식회사
2 SHEPPARD AVE. EAST.
SHEPPARD CENTER NO. 1702
WILLOWDALE, ONTARIO
TEL : 224—2491

당사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삼양타이어(마샬브랜드) 를 캐나다에 공급하고 있읍니다.

경 축





전두환대통령각하 내외분의 캐나다방문과 한·카 정상회담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캐 나 다 한 일 은 행
한일은행 토론토 사무소

☎ : (604) 681 — 2266
(416) 865 — 0456